

2020 금강 학이시습지
수업에세이
공모전 작품집





[CONTENTS]

분야 수업 에세이

최우수상

Follow FM Fourie

김동원

행정학전공

9

우수상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걸까?

김동헌

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전공

17

변화하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알게되다

김수림

행정학전공

22

장려상

#살아있다

강동훈

국제통상통역학과

27

국제운송 마스터를 향하여

한준수

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전공

32

방구석 유학생활

이한이

글로벌지역통상학(중국)전공

43

참가상

공모전 접근을 이렇게 쉽게?

구동언

공공정책학부

45

금강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좋은 강의, 인간관계와 심리학

지형준

글로벌융합학부

50

나 그리고 타인을 위한 수업

유채연

사회복지학전공

52

미래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가야할 길

예병찬

경영학전공

54

시나브로

고수빈

행정학전공

56

이 수업 들어봐요! 노동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다운

사회복지학전공

59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강의

서건희

불교인문학부

61

2020 CGU 학이시습지 수업에세이 공모전 작품집

좋은 수업을 배우고 때때로 익혀
학우들과 공유하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분 야 학습 노하우

최우수상

혼자도 공부하고 같이도 공부하고	이다윤	사회복지학전공	67
-------------------	-----	---------	----

우수상

당신이 투자한 시간과 열정만큼 결과가 나온다	조우석	FTA 시장전공	75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고수빈	행정학전공	79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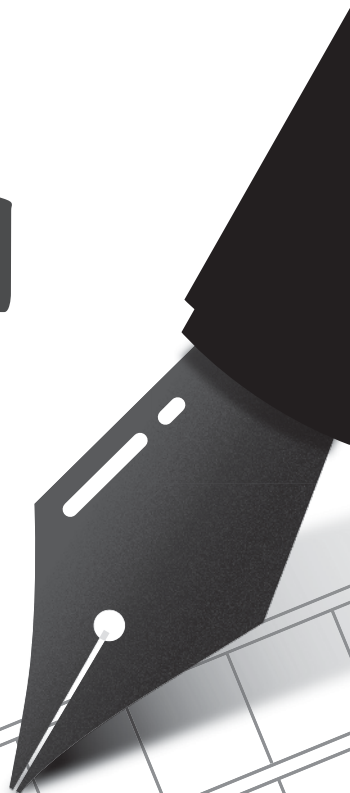
본인의 현 상황의 노하우	서건희	불교인문학부	87
시간을 아까워 하며 찾는 목표	이채은	경영학전공	89
시험 전날에 시험문제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동연	공공정책학부	91

참가상

내가 배우고 느낀 것에 대하여	이해명	공공정책학부	97
슬기로운 비대면수업 생활	이한이	글로벌지역통상학(중국)전공	100
위기를 기회로!	류석주	경영학전공	103

분야

수업 에세이





최우수상

Follow FM Fourie

김동원(행정학전공)

Follow FM Fourie

김동원(행정학전공)

교과목 | 영어 듣고 요약하기(포리 교수)

시간은 참 빠르더군요. 2018년 7월 24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의 군 복무를 마치고 어느새 다가온 2학기였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이 되었죠. 3학년 2학기인 저는 슬슬 졸업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고 영어 졸업 인증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설 과목을 보는데 이게 웬걸,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옛날의 외국인 교수님들이 '포리'·'랜달' 교수님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수강 신청 날, 두 교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던 저는 꽤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영어 과목을 신청하려 했는데 랜달 교수님 과목은 1-2분 새 금방 차버리고 남은 건 포리 교수님 과목밖에 없더군요. 의아했지만 어쩔 수 없지요. 그냥 과목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날 바로 느꼈습니다. '아...FM이시다.' 수업이 뽀뽀하기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꺼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이유로 제가 지금 이 과목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니 포리 교수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학기에 들은 '영어 듣고 요약하기'란 수업이 어땠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리 교수님의 영어 듣고 요약하기 수업의 최종목표는 이렇습니다. '영어를 잘 듣고 잘 요약하자.' 그것을 위해 배우는 과목이죠. 포리 교수님은 그 목표를 위해 우리에게 많은 '도구'와 숙제를 곁들어줍니다. 한 학기 내내 뽀뽀하죠. 다른 말로 그만큼 알차다는 뜻입니다. 교재는 'Pathways'로 다음 주에 나갈 진도만큼의 책의 문제는 미리 풀어야 하며 수업 시간에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쓰입니다. 교재의 정해진 진도를 다 끝내면 '수업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1주 차, 2주 차에선 'Listening이란 무엇인가?'와 'Note-taking(노트 정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둘 다 수업 목표에 핵심적이죠. 수강생들은 이 부분에서 '올바르게 듣는 자세'와 '듣고 난 뒤 핵심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요약할지 (Note-taking)'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엔 핵심 하나가 빠져있죠? 바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교수님은 Listening을 강조하시며 이를 연습할 세 가지의 수업 도구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도구는 'Dictation(받아쓰기)'입니다. 외국인이 말하는 문장을 잘 듣고 그대로 쓰는 훈련인데요. 느리게 말하는 데 왜 이리 자꾸 몇 단어를 놓치는지... 이에 관해 고됐

던 이야기는 후에 서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영화 트레일러입니다. 영화 트레일러를 보고 거기서 나온 내용에 대한 문제를 맞히는 것이죠. 세 번째 도구는 영어를 쓰는 두 사람의 일상적인 대화를 들으며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세 가지 도구의 공통점은 '일상적인 대화 혹은 실제로 쓰이는 언어'로 문제를 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학생은 고등학교 때 Dictation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미국인들이 쓰는 자연스러운 언어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포리 교수님이 제시해준 Dictation 자료들과 문제들을 풀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Slang(은어) 같은 외국 본토만의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억양도 다양해서 쉬운 단어조차 알아듣기가 어려웠죠. 이 듣기 연습은 기말 전까지 계속되며 중간고사는 이런 듣기 문제 위주로 풀게 됩니다. Dictation, 영화 트레일러, 영어 대화 문제, 이외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나 듣기 문제가 있죠. 아 참 과제 부분에서 설명 못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듀오링고'라는 영어 공부 앱 과제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문제를 풀며 일정 경험치를 채워야 합니다. 영어의 기본적인 문법이나 문장들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아 자세한 서술은 생략하겠습니다.

> 위의 사진은 포리 교수님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정보 대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과제, Dictation 연습할 수 있는 페이지, 수업 PPT 자료, 단어 시험 자료 등등. 이 페이지만 봐도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진짜(Real)'라는 것ですよ.

중간고사 이후에는 'Summary(요약하기)' 연습도 하게 됩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Listening'에 중점을 두어 듣는 능력만을 키웠다면 이제 잘 요약하는 법을 배울 차례가 온 것입니다. 포리 교수님이 만든 사이트에는 Summary 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엔 요약하는 법에 대한 방법과 요약 연습을 해볼 글감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연습할 시간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개미에

대한 설명을 써놓은 한 문단의 글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여기에 일 이주차에 배운 Note-taking 방법도 쓰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 자신의 방식으로 앞에 놓인 정보를 알맞게 정리 하라고 합니다. 그다음 정리한 내용을 이용해 깔끔히 요약문을 완성하는 것이죠. 기말고사는 중간 고사 문제들 + 제시문에 대한 Summary를 쓰고 제출하면 끝! 그렇게 한 학기의 영어 듣고 요약하기 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강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대략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수강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풀어보면서, 구체적인 수업의 장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포리 교수님의 Hard FM 적인 면에 충격을 받았던 에피소드, 두 번째는 ZOOM 수업이라서 당차게 할 수 있었던 재밌는 리액션 에피소드, 세 번째는 Dictation을 마주하며 너무 압담함에 저지른 충동적인 ‘어떤 것 마시기’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 해드리고는 수업 경험을 통해 나에게 생긴 긍정적인 변화를 서술하는 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 겠습니다. Dictation의 고통을 딛고 극복하는 모습이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강의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포리 교수님은 자신의 수업에 대한 애정이 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 숙 제를 한 뒤 사진을 찍어 교수님 이메일로 보내어야 합니다. 처음엔 의문 없이 ‘그런가보다’ 하고 이메일 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포리 교수님이 답장을 보내시더군요! 학생들 개개인의 숙제를 보고 일일이 답장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로는 실수로 제출해야 할 사진 을 하나 첨부하지 않았는데 그걸 알아채시고는 숙제 하나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포 리 교수님의 꼼꼼함에 놀라 ‘정말 이 교수님 아래서 배운다면 뭐든 훌륭하게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ZOOM 수업을 진행하며 있었던 재밌는 일인데요. 포리 교수님이 ‘Listening’ 에는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적극적) 듣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능동적 듣기는 바로 적 당한 리액션을 말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셨죠. 예시를 들어주는데 어떤 충격적인 얘 기를 듣거나 흥미가 간다면 “Oh, really? Wow!” 이런 식의 반응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교수님은 역 할극을 통해 예시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ZOOM이라 그런지 역할극에 별 부담 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곧장 눈빛으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을 강렬히 보내어봤죠. 그러자 교수님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더군요! 잠깐 역할극을 해달라고요. 저는 포리 교수님이 저희에 게 보여주신 대로 훌륭하게 리액션을 수행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쓰는 제스처를 곁들여서 맛깔나 게 했지요. 그랬더니 ZOOM 화면엔 표정이 밝아진 학생분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던지요! 온라인 수업이기에 직접 대면하지 않은 점이 제게 이런 용기를 갖게 해준 것 같습니다. ZOOM 수업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덕분에 아직도 강렬히 기억에 남은 ‘능동적 Listening 방

법’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Dictation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아까 에피소드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드릴 때 충동적인 ‘어떤 것’ 마시기라고 소개하였죠. 대부분 ‘술’을 생각하셨을까요? 하하! 때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험대비를 위해 Dictation 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었죠. 1세트당 10문제가 있는데 총 200세트가 있습니다. 전 제 실력의 부족함을 알고 200세트부터 거꾸로 가며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 했습니다. 200, 199, 198, 197, 196 그러다 195쯤에 딱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분명 아는 단어인데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어려우면 ‘아,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아직 부족구나.’ 하겠지만, 알쏭달쏭한 느낌이 계속되면 꼭 문제가 나를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만 이 스트레스에 정신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노트북을 ‘팍!’ 소리 나게 접어버리고는 편의점에 가서 초코우유 2+1을 충동적으로 구매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의자 앞에 앉습니다. 그래도 시험이 코앞인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초코우유 3개를 한꺼번에 쭉쭉 마시면서, 아득바득 초코우유를 잘근잘근 씹으면서 문제를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독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평소에 초코우유 3개를 한꺼번에 마셨다면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쇼크 비슷한 것이 왔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뇌가 과부하를 해서 그런지 쇼크는 오지 않더군요. 이날 Dictation 10세트는 더 풀어봤을 것입니다. 나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날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쩐지 Dictation의 말들이 좀 더 느리게 들리고 너무 쉬워졌다 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평소 수업에서 10문제 중 5~6개밖에 정답을 맞지 못했던 것이 이 일 이후 8~9개는 기본으로 맞추게 되는 실력에 도달했습니다.

확실히 저의 영어 듣기(Listening) 실력은 수업을 듣기 전보다 훨씬 상승해있었습니다. 중간고사 때 Dictation 문제엔 힌트가 적혀져 있어 혼자 연습할 때 보다 오히려 더 수월하게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



다. 한 글자 한 글자 발음하는 것이 들리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저의 게으름을 조금 없애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게으르게 참여했다가는 금방 낙오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본 주에도 다음 주 과제가 나옵니다. 매주 과제를 해야 하죠. 과거의 제 모습엔 과제를 기억도 못 하고 할 생각도 없던 모습이 섹니다. 포리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과제를 다 해내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다 해냈을까요? 포리 교수님이 늘 사이트에 친절하게 과제가 무엇인지 써주시기 때문에 게임의 '퀘스트' 개념으로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기(Summary) 측면에선 아무래도 Note-taking이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초·중·고·대학년까지 해왔던 노트 필기법이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빼곡히 다 적는 게 좋은 게 아니더군요. Note-taking 방법의 하나로 배운 Cornell method는 정말 아름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최대한 간결한 문장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 떠오른 생각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맨 아래에는 'Summary' 요약을 적으며 마무리하는데,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나중에 기억을 되돌아볼 때 도움이 될만한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강 후 여유가 생기며 책을 읽고 꽤 많은 정보를 정리하고는 하는데, 글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에서 배운 Note-taking 방법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만 압축하고 요약하며 더 빠르고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을 글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그 전에 미래의 수강자분들에게 '영어 듣고 요약하기' 잘하는 법을 안 알려드리고 갈 순 없죠. 고생스럽긴 하지만 잘하려면 어쩔 수 없는 노력의 과정입니다. 첫째로 제 에피소드에서 보셨듯이 수업 시간에 직접 부딪히고 성실하게 발표하세요. 강렬한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둘째로 매일 Dictation 하나 정도는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Dictation은 처음에 잘 안 들릴 수는 있어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쉬워지는 때가 옵니다! 저처럼 초코우유 한꺼번에 마시면서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교수님이 과제로 낸 것만 성실히 해도 실력 상승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과제는 꼭 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로 이 글을 봐주시는 분들께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리 교수님의 과목은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꿀' 강의가 아닙니다. 매주 과제를 해야 하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하며 뒤처지면 안 되는 강의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학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인 '더 나은 학습'을 위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포리 교수님은 제가 지금껏 만났던 교수님 중 가장 FM이고 철저하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어떻게 상승시킬지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는 포리 교수님의 과목을 듣기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포리 교수님의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이 수업을 대하는 자세나 노력, 열정 같은 것은 정말 옆에서 배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수님 밑에선 언제나 좋은 과목이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Follow FM Fourie,"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훌륭한 대학 생활을 기원합니다.



우수상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걸까?

김동현(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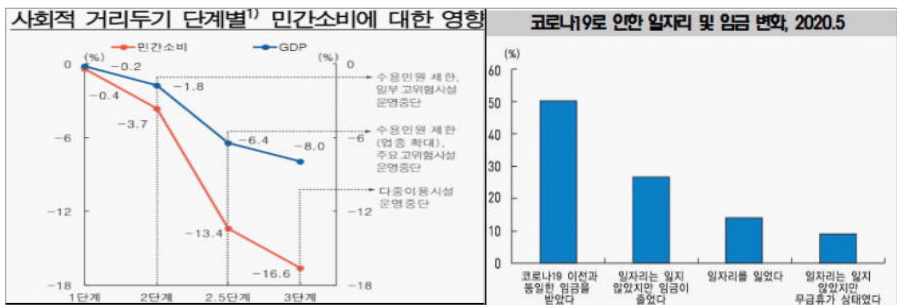
변화하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알게되다

김수림(행정학전공)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걸까?

김동헌(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전공)
교과목 | 마케팅조사방법론(조윤정 교수)

코로나 19 시국으로 인해 많은 음식점, 옷가게, 그 외 다양한 업종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와 밀린 이자 등으로 인해 목표한 매출을 채우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며 결국 폐업을 하는 안타까운 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도 전에 도태되는 곳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는 그렇게 가시적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스스로가 이겨낼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영업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인해 회사 내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실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출처: 연합뉴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해 소비는 감소하고 매출이 나오지 않아 직원들이 실직하고 수입이 없으니 돈을 사용하지 않아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지출도 없는 최악의 경제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적인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유지 및 증가를 이루어 나가는 곳들입니다. 언택트 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온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한 후 온라인 쇼핑 비중이 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음식, 의류, 가전, 식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케팅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오프

라인의 거래가 줄어드는 만큼 오프라인 마케팅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에 진입하여 효율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마케팅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자가 상품 혹은 용역을 소비자에게 유통하는데 관련된 경영 활동. 더 정확하게는 개인 및 조직의 목표를 만족하는 교환의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나 상품 및 용역의 개념을 정립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유통 및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더 효율적으로 생산 및 광고를 하고 더 효율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왜 마케팅에 대해 알아야 하며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중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여,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수업은 마케팅조사방법론이라는 수업입니다.

마케팅조사방법론은 경영학 전공으로써 조윤정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마케팅의 조사 절차를 배운 후 실제로 본인이 서비스를 제작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을 해보는 수업입니다. 기본 단계부터 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 수집, 분석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조사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마케팅에 대해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를 이해하고 개발하고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 및 학계 등에서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강자의 실무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대표적으로 이론→실습→이론→실습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마케팅을 위한 조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 후 자신이 원하는 기업 등을 선택하여 마케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을 마케팅할 것이며, 어떤 주제로 마케팅을



출처: NEWSIS

진행할 것인지 정합니다. 그 후 자신이 선정한 기업과 주제로 마케팅을 위한 서베이를 만들어 실제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구글 서베이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조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데이터들은 2차 이론에서 어떻게 이용 및 해석을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운 이론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마무리되는 수업입니다.

	파리바게뜨 음료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종류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맛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가격이 저렴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제조 속도가 빠르다.	①	②	③	④	⑤
5	쉽게 원하는 음료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음료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청결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베이 항목을 만들어 구글 서베이에 첨부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구성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SPSS라는 프로그램으로 다루었습니다. SPS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진행한 서베이의 결과 데이터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0. 11. 19 오후 11:04:44	1	23	3~4명	학사	학사						
2020. 11. 19 오후 11:21:21	2	24	0주~1주	학사	학사						
2020. 11. 19 오후 11:53:08	1	24	2~3달째 1명	학사	학사						
2020. 11. 20 오전 12:33:17	1	24	1달째 1~2명	학사	학사						
2020. 11. 20 오전 7:08:36	1	24	1~2명	학사	학사						
2020. 11. 20 오후 12:37:18	1	22	한달째 1명	학사	학사						
2020. 11. 20 오후 4:38:37	2	24	1~2명	양	양						
2020. 11. 20 오후 9:44:06	2	26	1~2명	학사	학사						
2020. 11. 20 오후 9:46:47	1	24	한달 1명	학사	학사						
2020. 11. 20 오후 9:55:42	2	29	한달째 1~2명	양	학사						
2020. 11. 20 오후 9:56:43	1	24	1달째 몇 명 안남	거주지론 소년	거주지론 사생						
2020. 11. 20 오후 10:12:20	1	24	1~2명	간접 쓴 남자형제 1명남매	학사						

이런 식으로 제가 조사한 서베이의 결과를 정리한 후 T-test,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의 분석을 통해 각 결과값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과 만족도의 관계, 방문 빈도와 만족도의 관

계 등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값에 대한 예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동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파리바게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전반적으로 파리바게트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동분산을 가정함	.650	.439	.000	10	1.000	.000	.484	-1.079 1.079
	동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00	9.637	1.000	.000	.401	-.898 .898

계수 ^a						
모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411	.941		.437	.674
	(2) 파리바게트 밖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전반적으로 파리바게트의 방문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357	.366	.376	.977	.357
	(2) 파리바게트 음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전반적으로 파리바게트의 음료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220	.353	.249	.625	.550
	파리바게트 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전반적으로 파리바게트 매장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274	.328	.245	.835	.428

a. 종속변수: 파리바게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전반적으로 파리바게트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처럼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 표를 해석하여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온 결과값을 보고 과연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가 소비자의 심리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심리는 곧, 매출로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한 표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수업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를 했었기에 파리바게트에 관련된 마케팅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본인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상관이 없으며, 마케팅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제가 다니는 파리바게트 매장의 매니저님에게 설문을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서베이를 작성해주시면서 파리바게트 본사에 취직할 거냐고 여쭙보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전공 관련 조사라고 말씀했더니 요즘 전공은 좋은 거 배우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해야 할 것을 제가 대신 한다고 월급 올려줘야 하나라고 농담도 하셨습니다.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도 이 서베이의 중요성을 알아보셨습니다. 한편, 서베이를 진행하기 전에 수정을 위해 교수님에게 5번이나 연락을 드려 귀찮아하시진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내용의 서베이를 진행하게 되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 이상의 서베이를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수업은 이런 의문들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마케팅 관련 업무를 꿈꾸고 있다면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에 마케팅 관련 업무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기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SPSS를 다루는 법을 배워 크게 유익하였습니다. SPSS는 마케팅 업무 쪽에서 엑셀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프로그램이기에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미리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이점인지는 모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베이를 직접 작성해보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결론 도출법도 배워 마케팅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서베이를 진행해보고 결론도 내 볼 예정입니다. 가볍게 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취미 삼아 서베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서베이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베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선 한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너무 어려워도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입니다. 물론 공부하는데 인내심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표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때 짜증을 먼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셀을 처음 접할 때의 어색함과 어려움이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PSS도 엑셀과 같습니다. 처음 접하고 생소한 프로그램이기에 처음 보면 이게 모지? 라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결론 도출 방법이 있기에 무엇이 적당한지 헷갈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하나 시도해보고 익숙해진다면 상당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처음엔 굉장히 많이 헤매고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엑셀도 다루어 보지 않았고 요령이 없었으며 처음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 적은 시간을 오래 가져야 하는 컴맹 성향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통계 프로그램을 다루어 보았거나 최소한 엑셀을 다루어 보았다면 금방 적응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계에 관심이 있거나,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꼭 수강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수업으로 마케팅조사방법론을 선택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알게되다

김수림(행정학전공)

교과목 | 미디어로중국보기(강소연 교수)

코로나로 인해 중국 어학연수 중 갑자기 돌아오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점점 비대면으로 바뀌어가는 세상속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적응해야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수강신청을 하면서 '미디어로 중국보기' 라는 과목명의 글로벌지역(중국) 전공과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과 "미디어"라는 2020년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수업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이 갔고, 그동안은 이 둘을 제대로 공부해본 적은 없지만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를 살펴보았더니 새로운 미디어인 온라인 언론,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중 특히 중국경제의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에 주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을 배운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뿐 아니라 중국의 공유경제시스템과 왕홍 등 뉴미디어와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 섹터를 진단하고 미중플랫폼 전쟁의 추이를 예견하여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보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개별 기업에 적용한 후 '모의중국주식 투자프로젝트'를 실제 해보며 중국 시장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수업을 지향하는 강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의는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Lms에 접속하면 교수님이 사전에 녹화해두신 동영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수강하던 일반적인 동영상과는 달랐습니다. 교수님의 모습과 수업을 위해 직접 준비하신 ppt자료가 같이 나오도록 두 화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판옵토 시스템을 사용해서 수업의 질을 높여주셨습니다. zoom수업으로 진행하면 해당하는 시간을 채우면 되는거지만 판옵토를 사용하게 되면 미리 녹화하고, 편집하고, 자료를 만들어야하기에 시간이 몇 배로 걸리지만 교수님께서 매번 공들여 준비해오셨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강의에 대한 소개를 압축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 '수치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베스트셀러인 한스 로슬링 박사의 <팩트폴니스>를 강의로 만들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사람의 말이나 기준에 자기가 배운 것들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은 현재 세계최대강대국인 미국의 경제수준에 근접해지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중국을 몇 십 년 전 과거의 중국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강의는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의 시장 변화와 앞으로의 미래를 객관적인 그래프와 표를 통해 스스로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의입니다.

둘째, 통상업무능력, 글로벌 문화접근능력 그리고 창의적 융합과 응용능력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로 중국보기>강좌는 중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여, 그것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해주는 친절한 강의입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서 놀랐던 것은 북경과 상해같은 대도시가 아닌 일반 소도시에서도 물건을 살 때 지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카드가 보편화되어있지만 중국은 핸드폰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이 가장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얼굴을 스캔해 결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있으면 얼굴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 시간은 5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전자, IT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인 또한 새로운 통신 시스템에 거부감이 낮은 편입니다. 중국의 위챗, 웨이보 등 다양한 어플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중국 시장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국인들의 성향과 선호도 등을 통해 변화가는 중국의 소비경향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아는 것은 '수박 겉'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강소연 교수님께서서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동안 살았던 경험을 통해 실감나고 생생하게 중국인들의 사고경향을 알려주셔서 그들의 심리와 습관까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의를 미루고 미루다 수강기간 마지막 날에 듣는다고 했지만 저는 교수님의 재밌고 유익한 수업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오투 시스템은 녹화와 편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강의를 올려주시면 들을 수 있기에 마치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이 올라오는 시간을 기다리듯이 <미디어로 중국보기> 강의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유쾌하고 유익한 강의에 감사한 저는 “교수님 이 과목은 제게 힐링 과목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는건 분명한테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마치 힐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카톡을 보냈고, 교수님께서서는 원래 조금 지치셨지만 저의 연락을 보고 다시 힘을 내서 강의 준비를 할 수 있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제자들과의 소통 또한 중시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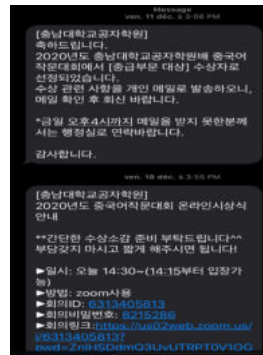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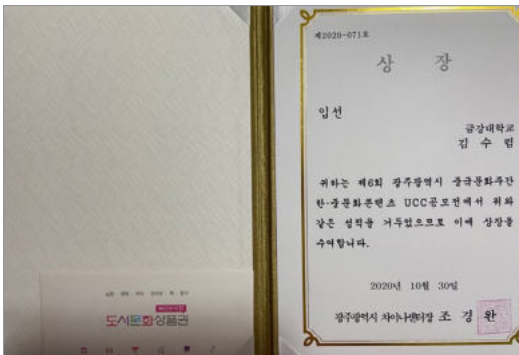
수업을 통해 중국에 대한 영감을 받은 저는 중국관련 동영상 제작하였고, 광주광역시 중국문화주간

한·중 문화콘텐츠 UCC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동영상상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기계치지만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 더 커진 관심과 열정으로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결과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어 글쓰기 대회에서 대상, 즉 1등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로 중국보기>를 통해 저는 세계의 변화 추세, 경제 전망, 한국과 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의 관계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분야의 학문인데도 교수님께서 실감나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시고, 여러 읽기자료를 자료실에 올려주신 덕분에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제무대를 꿈꾸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다국적 회사나 글로벌 취직에 관심 있으신 금강대학교 선후배분들, 동기분들께 이 과목을 수강할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2020-2학기 미디어로중국보기 (01번) ▾

총 34건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	중국의 변화와 우리의 기회2 @ 14주 3회차 인정시간 : 35분	강소연	2020.12.01	11	
2	중국의 변화와 우리의 기회1 @ 14주 2회차 인정시간 : 25분	강소연	2020.12.01	11	
3	중국의 중추와 생활문화 @ 14주 1회차 인정시간 : 25분	강소연	2020.12.01	11	
4	베이징연년연월 기념문예 @ 13주 2회차 인정시간 : 30분	강소연	2020.11.24	11	
5	민원국의 성공전략 @ 13주 3회차 인정시간 : 25분	강소연	2020.11.24	11	
6	중국 경제정책과 공산당 리더십 @ 13주 1회차 인정시간 : 25분	강소연	2020.11.24	11	
7	핵심지 중국 소비와 리포트 2020 @ 12주 1회차 인정시간 : 30분	강소연	2020.11.17	11	
8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 2 자료 @ 12주 3회차 인정시간 : 30분	강소연	2020.11.17	11	
9	중국 소비시장 특징 1 수업자료 @ 12주 1회차 인정시간 : 25분	강소연	2020.11.17	11	
10	중국의 소득격차와 소비시장 @ 11주 2회차 인정시간 : 35분	강소연	2020.11.10	12	





장려상

#살아있다

강동훈(국제통상통역학과)

국제운송 마스터를 향하여

한준수(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전공)

방구석 유학생활

이한이(글로벌지역통상학(중국)전공)

#살아있다

강동훈(국제통상통역학과)

교과목 | 프로그램 설계기초(박태우 교수)

영화「#살아있다」는 좀비로 인해 집에 갇힌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과정을 그리는 영화이다.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오로지 집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다. 설령 밖이라도 나가려고 할 때에는 좀비의 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현재, 아니 당장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했다. 삶의 방식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학업, 어쩌면 대학생활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본인 또한 기대했던 한 해와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어떻게든 코로나로 인한 무묘한 일상 속에서 “살아남고 싶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1학년 때,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듣지 못했던 ‘컴퓨터의 활용’ 과목을 졸업을 앞두고서야 듣게 되었다. 해당과목의 이름은 ‘프로그램 설계기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뭔가 느낌이 심상치 않았다. 교양 필수였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들어야해서 마음을 비우고 1순위로 수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니 내가 알고 있던 컴퓨터의 활용이 아니었다. 내 기준에서는 활용의 수준을 넘어서 전문가 과정처럼 느껴졌다. 교재는 C언어와 관련된 것이었고 수업내용은 C언어를 통한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코딩 실습까지 포함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번 학기 학점이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본격적으로 어떠한 과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프로그램 설계기초’ 과목은 교양필수 과목으로써,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프로그래밍의 기초 언어이자 오랫동안 가장 주목받고 있는 C언어를 학습하여 다양한 함수와 알고리즘 등을 직접 실습해보는 과목이다. 교재도 입문자에게 어울리는 교재인 ‘C언어 for beginner’를 사용한다. 강의의 평가방법은 출석 10%, 과제 20%,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각 30%, 기타 10%로 구성되어있다. 수업의 진행방식은 의

외로 간단하다. LMS의 강의를 통해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선행한 후 본인의 PC를 활용하여 직접 실습해보는 과정을 포함한다. 초기에는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수님이 LMS 상의 강의에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시범을 그대로 따라해보면서 C언어의 세계로 조금은 더 수월하게 진입이 가능하다. 중간고사 이후의 시점부터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지 않고 이론과 실습 간에 유의점 등을 위주로 강의를 이루어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 집중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상태이므로 강의 후에 혹은 강의와 함께 스스로 실습을 할 수 있다. 해당 실습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Visual Studio'를 사용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인증과 함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해당 과목의 과제는 교수님께서 수업시간 중간에 추가 연습이나 심화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주어지게 되는데, 강의 내용을 천천히 다시 복습하고 스스로 실습해보면서 답을 찾아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시험은 주로 교재에 있는 예제와 응용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는데, 교과서를 꼼꼼하게 학습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가 가능하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그대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강의의 진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강의의 구성은 크게 도입-이론-분석-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도입에서는 해당 주차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한 개괄과 흥미유발 등을 의미한다. 이론부분은 코딩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이론이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다. 분석부분은 응용문제와 예제 등을 직접 작성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지 혹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원리를 적용할지 등을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보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실습은 학생이 직접 코딩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h3>1. while문</h3> <p>■ 무한루프를 위한 while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식이 무조건 참이어야 함 for(;;)와 동일한 역할 while(1)로 표현 <p>그림 7-3 while문을 이용한 무한 루프</p>	<h3>1. while문 - [기본 7-3] while문으로 무한 루프 만들기</h3> <pre> 01 #include <stdio.h> 02 03 int main() 04 { 05 int a, b; 06 07 while (1) 08 { 09 printf ("더할 두 수 입력 (멈추려면 Ctrl+C): "); 10 scanf ("%d", &a, &b); 11 12 printf ("%d + %d = %d\n", a, b, a+b); 13 } 14 } </pre> <p>— 무한 루프를 만드는 코드이다.</p> <p>— 입력값을 공백으로 분리한다.</p> <p>— 결과를 출력한다.</p>
--	---

〈자료1〉 강의 구성

<자료1>에서 보는 것처럼 도입부에서 교수님의 간단한 인사가 끝나면 이론부분으로 넘어온다. 어떠한 원리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림 혹은 수식 등을 활용한 설명이 이어진 이후 바로 분석 부분파트가 시작된다. 방금 배운 이론을 코딩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작성할지, 해당 코드 별로 분석을 한다. 왜 이 수식이 쓰였는지, 왜 이 함수가 쓰였는지를 이 부분에서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과정에서 습득한 힌트와 방법을 토대로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게 된다. 코딩을 마친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 값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만약 결과 값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면 인터넷 검색과 교재복습을 병행하여 답을 알아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명쾌하게 답을 주신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답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 설계기초’ 강의를 수강하면서 제일 어렵지만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니 뭐니 해도 직접 코딩을 해보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 대학의 금강아카데미부터 다양한 언론매체까지 코딩에 대한 소식은 수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상경계열의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랬던 코딩을 나의 노트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웠다. 특히 10주차 과제로 수행했던 대소문자 변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

1 #include <stdio.h>
2 #include <string.h>
3
4 int main()
5 {
6     char in[50], out[50];
7     int i, len;
8     int diff = 'a' - 'A';
9
10    printf("문자입력:");
11    gets_s(in);
12
13    int n = strlen(in);
14
15    for (i=0; i < len; i++)
16    {
17        if (('A' <= in[i]) && in[i] <= 'Z'))
18            out[i] = in[i] + diff;
19        else if (('a' <= in[i]) && in[i] <= 'z'))
20            out[i] = in[i] - diff;
21        else
22            out[i] = in[i];
23
24        out[i] = '\0';
25
26        printf("변환한 문자 => %s\n", out);
27    }
28 }

```

<자료2> 대소문자 변환기 프로그램 작성

〈자료2〉는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코딩을 한 것이다. 학과 및 이름을 입력하면 입력된 문자를 반대 순서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본 원리는 ASCII CODE(아스키코드)의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가 32라는 것을 활용한다. ASCII CODE의 대문자는 10진수 65부터 90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소문자는 10진수 97부터 122로 표현이 가능하다. 소문자와 대문자의 차이는 32이다. 기본 원리에 의해서 $\text{int diff} = 'a' - 'A';$ 가 선언되었다. 이후에는 for문과 else if 문을 활용하여 대/소문자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for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력된 문자가 대문자인 경우에는 아까 선언한 diff값을 더해주고, 입력된 문자가 소문자인 경우에는 diff 값을 빼주게 된다. 전자에서 diff 값을 더해주는 이유는 ASCII CODE의 대문자가 소문자 보다 32만큼 값이 적기 때문이고, 후자에서 diff값을 빼주는 이유는 소문자가 대문자 보다 32만큼 값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32의 차이만큼 더하고 빼주는 과정과 숫자를 문자로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 대/소문자의 변환이 가능하게 된다.

```

Microsoft Visual Studio 디버그 콘솔
문자 입력: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lation kangdonghun
변환된 문자 =>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LATION KANGDONGHUN

C:\#0소스\exam_21\Debug\exam_21.exe(프로세스 52612개)이(가) 종료되었습니다(코드: 0개).
디버깅이 중지될 때 콘솔을 자동으로 닫으려면 [도구] -> [옵션] -> [디버깅] > [디버깅이 중지되면 자동으로 콘솔 닫기]를 사용
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창을 닫으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

〈자료3〉 대소문자 변환기 실행창

위의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 코딩을 해봄으로써,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고 예상했던 결과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이 이 강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된 강의가 약 15주차에 걸쳐서 진행된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코딩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변하게 되고, 무언가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예전에 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본인의 여자 친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본적이 있다. 딱딱할 것만 같은 코딩이 그렇게 로맨틱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C언어 혹은 코딩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명적이었던 그때

‘프로그램 설계기초’ 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치명적인 매운맛” 같은 강의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맛보게 되면 그 매운맛이 정신이 확 들면서도, 그 치명적인 매운맛에 자꾸만 이끌리게 된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나에게 생긴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들어보기만 했던 코딩 혹은 프로그래밍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다. 내가 살면서 코딩은 경험해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고, 어려울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런 코딩을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가장 감사하다. 아직도 입문자이면서 왕초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다룰 때 “어 웬지 여기에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것은 아닐까?”하는 물음표가 생기고는 한다. 이는 만큼 관심이 높아지는 것처럼 프로그램과 훨씬 더 친해진 기분이다. 또한 기본적인 것을 접하고 나니까,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전공이 국제통상학이지만 그 안에는 ERP, SCM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다. 즉, 상경계열 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로그램 설계기초’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할 것을 추천한다.

이 강의를 앞으로 듣게 될 예비 수강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꾸준히 연습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강의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코딩을 할 때 손에 익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타이핑이 느리면 시간도 오래 소모되고, 함수나 코드 등이 익숙하지 않다면 흥미는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연습량이 충분해야만 짧은 시간 안에 코딩을 해야 하는 정기고사 때에도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학습은 강의시간에 짧고 굵게 집중해서 이해하고, 실습을 바탕으로 한 학습을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물론, 어떠한 원리로 돌아가는지는 반드시 숙지한 상태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정기고사 대비방법에서 간단하게 추천하자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학습을 권장한다. 대부분의 시험문제는 연습문제나 응용문제 혹은 예제에서 출제가 된다. 특히, 교수님이 강의시간에 다루어주시지 않았거나 과제로 제출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교재에서는 정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야한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빌드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는 것이다. ‘visual studio’ 프로그램에서 코딩을 한 이후에는 빌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빌드를 하게 되면 해당 코딩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와 어느 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려준다. 이를 확인하여 수정에 수정을 하고나서 빌드를 다시 했을 때 성공이 나오면 그게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해나가다 보면 정기고사 대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 매주 꾸준히 해야 한다. 한 주차마다의 요구 연습량과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버락치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매주 학습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프로그램 설계기초’ 과목은 이번 학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 중의 하나이다. 다만 더 좋은 강의를 위한 건의를 하자면 수강생 간의 정보공유나 교수님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비대면 강의의 영향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코딩을 함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답답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수강생 간에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교수님과의 ZOOM 미팅을 통해서 접근방법을 교정하는 등의 방식을 추가한다면 더욱 생산적인 과목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강생의 열정과 교수님의 열정이 하나로 모아질 때 더욱 빛나는 과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운송 마스터를 향하여

한준수(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전공)

교과목 | 국제운송론(정문기 교수)

에세이의 시작으로 독자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먼저 소개를 하겠다. 나는 글로벌지역통상(미국)전공으로 재학 중인 201861122 한준수이다. 현재 나는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고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하고 있다. 나는 금강대학교 재학생들과 예비 금강인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추천을 해주고 싶은 강의가 있어서 수업에세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먼저 강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면 강의명은 국제운송론이고 전공교과목이다. 정문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며 목요일 오후 강의이다. 내가 이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수강하지 않은 전공교과목 중 가장 먼저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나의 전공은 무역, 운송, 통상과 관련이 있다. 아직 운송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나에게는 필수적인 강의였다. 그래서 나는 강의계획서를 보았다. 강의계획서에는 강의 개요와 목표가 빼곡하게 써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강의를 더욱 수강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국제운송론이라는 강의답게 국제운송의 기초와 해상운송, 정기선과 부정기선, 컨테이너선,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그리고 국제복합운송까지 다양한 종류의 운송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강의 시간도 목요일 오후라서 좋다고 생각을 했다. 토론, 토의와 발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다. 수강신청이 마무리가 되고 나는 9월 3일 첫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LMS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첫 강의 목록을 보았을 때 오리엔테이션 강의와 토론, 과제 그리고 자기 소개가 있었다. 자기 소개는 학번과 이름,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적게 되어있었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강의를 듣는 목적과 이 강의에 대해 원하는 것을 적게 되어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학생 한명 한명의 목적과 원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싶은 교수님의 학생들의 위한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한다. 주차별 강의는 강의, 토론, 과제 순서로 체계적으로 매주 이렇게 구성되었다. 강의는 2개의 강의로 첫 번째 강의는 교수님께서 강의계획서에 맞게 주차별 주제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고, 두 번째 강의는 학생들의 개인 발표를 주마다 1명씩 발표를 하여 발표 영상을 게시해주셨다. 과제는 운송과 무역 그리고 통상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나의

금강인들에게 과제를 할 때의 팁,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출처가 분명하게 있는 내용, 자료를 사용하면 정확한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과제, 토론, 레포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출처를 꼭 잊지 마시고 파일 마지막에 출처의 링크나 책 같은 경우 저자와 출판사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욱 완성도 높은 과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토론과 과제를 통하여 새로운 용어와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주었다.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더욱 집중을 하고 결과도 다른 것에 비해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과제와 토론에 대한 내용을 검색 하고 글을 쓸 때 한 번도 싫은 적이 없었고 미루고 싶은 적이 없었다. 매주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된 것이 나의 능력을 더 올려주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제운송론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이자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개인 발표였다. 매주 한명씩 본인 발표주제를 선정하여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었다. 나의 발표주제는 선하증권으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분량으로 발표를 해야 했다. 발표에 대하여 나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으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긴장을 하면 말을 더듬으며 목소리가 떨려 항상 실수를 할까봐 무서워한다. 무역실무 강의 발표를 할 때도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어서 아쉽다는 얘기가 있어서 발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리젠테이션에 녹음을 하여 발표를 하는 것이라서 실수를 너무 두려워 하지 말자는 스스로에게 부탁을 하였다. 실수를 하면 또 녹음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만족을 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계속 나 자신을 다독였다. 프레젠테이션 제작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았다. 선하증권이라는 주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려한 디자인,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프레젠테이션보다 간단하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중요 키워드, 표 그리고 그림을 넣고 글은 많이 쓰지 않았다. 모든 슬라이드에 글을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핵심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는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법적 성질, 종류, 법정기재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선하증권 서류 순서로 제작하였다.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을 시작하였다. 역시나, 시작한지 1분도 안되서 실수를 하였다. 녹음하는 날 안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목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물을 마시고 시간을 신경쓰지 않고 또박또박 천천히 녹음을 해보았다. 전문용어가 많아서 계속 실수를 하였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굳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깐 더 실수를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다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과 대화

2020년도 2학기 국제운송론

선하증권 (Bill of Lading)

2020. 11. 18
국제물류학과 2019학년도 2학기 2학년 1학기

1. 선하증권의 의미와 기능

기능

- ① B/L은 서류의 대리으로서 선박에 귀속됨으로써 받은 자의 지위에서 화물수령권, 전권인 화물에 대한 추종권으로
- ②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출하된 구좌의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
- ③ B/L에 기재된 내용은 효력있는 증거로
- ④ 선하증권의 영구적 정본을 가장 중요

1. 선하증권의 의미와 기능

의의

선사 발행 B/L	모항나 발행 B/L
선사 B/L	모항나 B/L
MASTER B/L	HOUSE B/L
DIRECT B/L	

선사 → 모항나 → 화주
Master B/L → House B/L

3. 선하증권의 종류

무사 선하증권과 사고 선하증권

- **무사 선하증권 (Clean B/L)**
→ 운하선에 아무런 손상과 파손이 없거나
→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이라고 표시된 선하증권
- **사고 선하증권 (Out or Dirty B/L)**
→ 비고란에 "5 bags torn"과 같이 운수할 당시 파손된 것을
불안화하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그 사실을 기재
→ 이런 사실이 기재된 선하증권

4. 선하증권상의 방점기재사항

과목명	기재사항
①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①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②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②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③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③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④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④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⑤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⑤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⑥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⑥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⑦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⑦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⑧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⑧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⑨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⑨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⑩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⑩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⑪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⑪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⑫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⑫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⑬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⑬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⑭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⑭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⑮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⑮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⑯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⑯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⑰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⑰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⑱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⑱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⑲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⑲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⑳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⑳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㉑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㉑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㉒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㉒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㉓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㉓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㉔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㉔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㉕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㉕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㉖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㉖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㉗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㉗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㉘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㉘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㉙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㉙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㉚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㉚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㉛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㉛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㉜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㉜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㉝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㉝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㉞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㉞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㉟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㉟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㊱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㊱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㊲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㊲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㊳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㊳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㊴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㊴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㊵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㊵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㊶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㊶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㊷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㊷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㊸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㊸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㊹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㊹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㊺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㊺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㊻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㊻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㊼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㊼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㊽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㊽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㊾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㊾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㊿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㊿ 선명명 (Description of commodity)

이번 학기 발표자료의 일부

를 하는 것처럼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하면서 발표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발표라고 생각을 하였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실수해도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다짐으로 다시 녹음을 시작하였다. 이전의 녹음보다 자신감도 더 생기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것 같았다. 몇차례 실수를 하긴 했지만 녹음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 또한 내용을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 내 눈에 잘 들어오고 내가 잘 외어둔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발표를 하였다. 이전의 녹음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이 느껴졌다. 약 15분 분량의 녹음을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발표에 트라우마가 있고 부담을 느끼던 나는 스스로 매우 만족을 하였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녹음이 끝나니깐 몸의 긴장이 풀렸다. 이번학기 나에게 가장 힘든 과제인 발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너무 기분이 좋았다. 발표를 할 때 완벽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학기 과제를 시작으로 토론, 개인발표까지 모두 만족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나에게 남은 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오픈북 형식으로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었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과제와 토론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고, 교수님께서 강의 영상에 보여주신 수업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캡처하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완벽하게 대비를 하기 위하여 모든 강의를 다시 듣고 핵심내용을 체크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시험 당일 문제를 보자마자 거의 내가 알고 보았던 내용을 나왔다. 나는 자신감있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가장 마지막에 풀고 아는 문제부터 침착하게 풀었다.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시간을 계속 허비하다 보면 알고 있는 문제도 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는 문제를 모두 푸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모르는 문제도 구글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여 바로 찾았다. 이렇게 시험을 마무리하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점수를 모르지만 나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강의를 비롯하여 과제, 토론, 개인 발표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빛나는 노력에 맞는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 강의는 국제운송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과제, 토론 그리고 개인 발표로 학생들에게 전공과목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과 전공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강의라고 나는 확신한다. 관세사 또는 무역, 통상, 운송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금강인 또는 예비금강인에게 이 강의는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강의로 강력하게 추천을 한다. 다만, 이 수업의 개선점을 제안해보자면 영어전문용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전문용어를 설명해주는 영어 단어장과 같은 파일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또한 국제운송에 많은 내용들 중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강의 수강을 희망하거나 고민을 하는 학우 여러분들에게 하고픈 조언은 국제운송론이라는 강의는 전공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강의 중 하나이므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무역과 통상을 더불어 운송에 대한 전반적인 전공 전문성과 전공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이고 국제운송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어려운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나 또한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다가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운송 마스터를 향하여 국제운송론 강의를 꼭 수강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이팅!

방구석 유학생할

이한이(글로벌지역통상학(중국)전공)

교과목 | 비즈니스영작문, 경제영어에세이읽기(랜달 교수)

2020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복병으로 인해 우리 금강대학교 또한 비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사이버 강의를 이용하여 비대면 수업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나는 언젠간 학교를 가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짜강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2021년이 될 때까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다른 전공수업이나 교양수업들은 대부분 녹화 강의로 진행되었지만 내가 수강한 랜달 교수님의 비즈니스 영작문과 경제 영어 에세이 읽기 수업들은 1,2학기 모두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었다. 외국어 수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지당한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비즈니스 영작문은 1학기 수요일 오전 9시에 수업이 시작되었고, 경제 영어 에세이 읽기 수업 또한 2학기 월요일 오전 9시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아침 9시, 1교시를 실시간 강의로 그것도 영어 전공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특히 2학기에 진행된 경제 영어 에세이 읽기 수업은 월요일 9시여서 월요일을 더 심하게 앓았고, 다른 수업들의 과제 제출 마감일이 대부분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더 더욱 힘들었다. 만약 랜달 교수님의 수업, 외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된다면 월요일 9시 수업은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매우 부지런한 성격이 아닌 이상 나와 같은 게으른 타입의 학우분들은 정말 월요일이 두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어차피 신청한 수업을 철회하기도 그렇고 토익이나 다른 자격증 시험도 9시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비즈니스 영작문은 business writing essentials 수업으로 우리가 나중에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난 후 일을 하면서 업무처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실무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다 보면 쓰기보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speaking만큼 writing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이메일을 직접 써보기도 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써야지 효과가 좋은지,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떤 글쓰기 방법이 효과적인지 배웠다. 온라인

수업이어서 아무리 우리가 글을 쓰고 실습을 많이 한들 교수님이 체크 해주고 피드백 해주시는 부분이 힘들지는 않을까 생각했지만 랜달 교수님은 수업 전에 구글폼을 이용하여 과제를 내주시고 제출한 과제들을 라이브 수업 중에 직접 한 명 한 명 피드백 해주셨다.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수가 적어서 가능했던 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서 좋았다. 내가 쓴 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글 또한 화면에 공유해서 피드백 해주셔서 다른 학생이 쓴 글을 함께 보며 다른 학생들이 적은 글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운이 좋게도, 이 수업을 수강하는 인원이 적어서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들을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다. 마이크를 켜서 직접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채팅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전공 수업이다 보니 3시간을 실시간 수업으로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랜달 교수님은 3시간 전체가 아닌 3시간 중 1시간 30분 정도는 수업 전에 미리 LMS에 올려주셔서 그것을 확인하고 녹화 영상을 듣고 과제를 하고 난 뒤 실시간 줌 수업을 들었다. 랜달 교수님은 교수님만의 사이트를 직접 만드시고 거기에 수업에 관련된 자료들과 주차별 단어들 그리고 관련 기사나 유튜브 영상들도 올려주셨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수월했다. 사이트에 올라온 단어들을 가지고 매주 수업 시간에 단어 퀴즈도 봤다. 처음에는 전공을 영어로 듣고 심지어 거기에 딱딱한 내용인 영작문 수업을 실시간 강의로 들어서 막막했는데 막상 수업을 들으니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았다. 이 수업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나의 줌 프로필 사진이 고양이 사진이었는데 쉬는 시간을 갖기 전 교수님이 고양이에게 설명하는 것 같으며 교수님의 프로필 사진도 귀여운 사진으로 한다는 말을 끝으로 쉬는 시간을 갖고 돌아오니 교수님 프로필 사진이 귀여운 강아지 사진으로 바뀌어있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랑 얘기하면서 웃던 기억이 얼핏 난다. 이 수업은 줌 실시간 수업이지만 캡을 켜지 않는 수업이어서 마치 라디오처럼 아침에 수업을 들으며 교수님이 하는 말씀을 따라 하기도 했었다. 다행인점은 그럴 때 마다, 내 목소리가 음소거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수업으로 인해 일주일에 하루는 3시간씩 꼬박꼬박 영어를 들으니 예전보다 영어에 보다 익숙해졌다. 수업을 들음으로써 영어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매주 단어퀴즈를 보았는데 구글폼으로 답안을 제출하고 나면 문제를 몇 개 맞고 틀렸는지를 이메일로 알려줘서 어떤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장점들을 토대로 나는 2학기 때도 랜달 교수님의 전공수업인 경제 영어 에세이 읽기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게 된다. 이 수업은 1학기 때 들었던 비즈니스 영작문과는 다르게 읽기에 중점을 둔 수업이라 글을 써보는 기회를 전에 비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경제 영어 에세이 읽기 수업인 만큼 다양한 경제 지문들을 접할 수 있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랜달 교수님만의 사이트에 주차별 학습 자료가 업로드되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아예 3시간 전체를 줌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셨다. 1학기 수업보다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경제 영어 에세이 읽기 수업은 캡을 모두 다 켜고 출석체크도 하

였다. 사실 1학기 때는 출석체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다. 왜냐하면 교수님 포함 5명 정도였기 때문에 한 화면에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왔었다. 굉장히 웃픈 이야기이다. 하지만 2학기 때 수업은 사람이 많아서 매번 출석체크를 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번 학기에는 듀오링고 라는 앱을 통해 사이트에 올라오는 구글폼 과제뿐만 아니라 듀오링고를 통한 경험치 200점 채우는 숙제 또한 생겼다. 처음 접하는 앱이고 해야 할 과제가 늘었다는 생각에 별 흥미가 없었지만, 듀오링고를 깔아서 시작하는 순간 나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다. 듀오링고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또한 공부할 수 있어서 중국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독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줬다. 일주일에 200점을 채우는 건 매우 쉬운 일이었고 앱 안에서 같은 레벨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등급제를 실시해서 과제가 주어진 기말고사 전 주까지 매번 1등 했던 추억이 있다. 앱에 접속해있는 유저들은 따로 온라인 표시로 떠있어서 나보다 낮은 등수의 플레이어가 온라인이면 등수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조바심에 계속 경쟁하게 만든다. 랜달 교수님은 점수를 한 번에 들어가서 다 채우는 것 다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열심히 해서 등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서 한 번에 다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했는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그것에 꾸준히 노출되어 있고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닌 같은 양을 해도 조금씩 하루 하루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2외국어나 제3외국어를 배워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단어도 한 번에 확 외우는 것보다 매일 적은 양의 단어라도 꾸준히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아무래도 수업의 내용이 경제를 주제로 하다 보니 생소한 단어들도 많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몇몇 보였다. 그래서 1학기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사도 더 세심하게 읽고 분석했다. 저번 학기와 동일하게 매주 보는 단어 퀴즈 또한 수업 시간 전에 단어공부를 했고 모르는 단어는 적어가며 공부를 했다. 랜달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딱 정해진 기사 내용과 단어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매주 변화하는 국제적인 경제 상황,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그리고 사회현상까지 알려주셨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매일 변화하는 환율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다. 수업내용이 아니라고 대충 듣는 것이 아닌 집중해서 들으면 언젠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진짜 수업 시간 중에 들었던 내용과 단어들이 토익 LC에 나와서 흠칫 놀라며 답을 체크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외국어 수업을 들을 때, 특히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꼭 시험 점수를 위해 수업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이 언어와 친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꼭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두 학기 모두 20학점을 넘게 들은 내가 랜달 교수님의 수업을 특히 추천하게 된 이유의 발단은 유학생인 내 친구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친구는 원래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번 연도 초에 코로나를 피해 한국으로 귀국한 미국 유학생이다. 현지에서 수업을 듣다 한국에 돌아온 것이기 때

문에 어마 무시한 시차를 극복하고 매일 하루의 시작을 늦은 저녁에 라이브 수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만 했다. 나는 오전 9시에 랜달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고 원래 올빼미형 인간이기 때문에 친구랑 밤새 서로 연락하며 바통터치하는 것처럼 내가 수업을 시작하면 친구가 잠에 드는 생활을 1년 동안 반복했다. 어느 날, 친구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기를 위로해 주는 나에게 친구는 갑자기 내가 부럽다는 말을 했다. 사실 자기가 듣는 수업이랑 내가 듣는 영어 전공 수업이랑 별 차이 없는데 자기 너무 힘들다며 이게 무슨 유학이냐며 나에게 한탄했다. 내가 부럽다고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듣는 수업이 방구석 유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친구에게도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도 방구석 유학 인정한다며 나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었다. 어차피 모든 수업이 줌으로 이루어지고 전공을 영어로 배우는 것 또한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홀린 듯 친구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친구와 이러한 대화를 하고 난 뒤 나는 더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다 힘든 상황에서 내가 계획한 일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계속 자책을 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에 안주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친구가 듣는 수업과 내가 수강하는 수업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줌을 통해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되고 영어수업을 3시간 동안 듣는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친구와 서로 웃으며 얘기했던 것을 혼자 진지하게 곱씹으며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다.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방법인 꾸준하게 나를 그 언어에 노출시키고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습관이 될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흔히들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지난 2020년 동안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씩이라도 영어수업에 참여한 것이 나 스스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내년 혹은 졸업하기 전 우리 학교는 졸업 필수 과목에 영어인증제 수업이 있어서 외국어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하지만, 그래도 강제로 수강한다는 생각보다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수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국어 수업을 수강할 때, 영어를 못한다고 한들 겁먹지 말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업은 배우려고 듣는 것이고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화면공유 해주시고 지금은 진도를 어디 나가고 있고 만약 퀴즈가 있다면 친절하게 링크까지 알려주시며 참여격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거는 하나도 없다. 특히나 영어 그리고 다른 제2외국어들은 많이 부딪혀봐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며 많은 것들이 변화하겠지만 영어는 우리에게 필수라는 점은 향후 20년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학점도 얻고 영어 실력도 얻을 수 있는 수업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지는 법! 다른 학우분들이 랜달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나와 같은 경험을 경험하고 영어 실력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길 바란다.

Here is your grade for "BWE Vocab 1"

2020년 3월 25일 (수) 오전 11:09

This email contains your grade for **BWE Vocab 1**. Do not reply to this email.

**Your grade: 10 /
10 (100.00%)**

Summary of your submission:

Name **Hani Lee**

비즈니스 영작문 수업의 첫 퀴즈

Here is your grade for "Vocab 1 Korea Miracle"

2020년 9월 21일 (월) 오전 10:07

가 ★

This email contains your grade for **Vocab 1 Korea Miracle**. Do not reply to this email.

**Your grade: 10 /
10 (100.00%)**

Summary of your submission:

Name **Hani Lee**

경제 영어 에세이 읽기 수업의 첫 퀴즈


 Hani


R.B. Wilson

1학기 수업때 교수님이 프로필 사진 강아지로 바꾼 웃긴 에피소드 인증사진.
수업시간에 같이 듣는 친구와 웃던 기억도 나고 심지어 강아지가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어서
더 웃겼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나와 교수님의 프로필 사진은 둘 다 변경하지 않고
2학기가 끝날 때까지 꼭 유지중이다.



참가상

공모전 접근을 이렇게 쉽게? 구동연(공공정책학부)

금강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좋은 강의
인간관계와 심리학

지형준(글로벌융합학부)

나 그리고 타인을 위한 수업

유채연(사회복지학전공)

미래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가야할 길

예병찬(경영학전공)

시나브로

고수빈(행정학전공)

이 수업 들어봐요!

노동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다윤(사회복지학전공)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강의

서건희(불교인문학부)

공모전 접근을 이렇게 쉽게?

구동언(공공정책학부)

교과목 | 현대사회의 공익과 공공인재(손세훈 교수)

공모전, 공모전에 대한 여러분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저는 공모전은 천재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펼치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만으로 제가 공모전을 얼마나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했는지 알 것이라 생각해요. 천재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어렵고 드문 것이니까요. 하지만 <현대사회의 공익과 공공인재>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공모전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도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현대사회의 공익과 공공인재 과목의 강의 소개는 다음과 같아요. 공직사회에서 이슈화되는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공모전을 준비하고 PPT를 만든다. “공모전을 준비하고 PPT를 만든다.” 이 부분에서 저는 공모전에 대한 첫 인상을 느끼면서 막연함을 느꼈어요.

첫 과제는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공모전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선택은 언제나 어렵죠. 하지만 선택만으로 이 과제를 끝낼 수 있으면 아무것이나 선택하면 돼요.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앞으로 진행될 과제에 맞게 과제를 선택해야 했어요. 교수님이 추천해준 ‘뽕’ 홈페이지에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공모전을 보고 제일 현대적인 주제인 ‘스마트시티’를 골랐어요. 현대적인 주제를 고르면 자료 조사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이점이 많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교수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두 번째 과제는 참여하기로 정한 공모전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보는 과제였어요. 공모전 소개, 유사한 공모전 탐색 그리고 수상작 게시하는 것이 과제에 필요한 내용이었지요.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쓰기 전에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에 대해 생각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은 가시성 이니까요. 내가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야 했어요. 내 주제는 스마트시티니까,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이미지를 뒷배경에 삽입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내용과 디자인에 통일성을 갖춘 덕분에 후행과제에서 교수님이나 학우들에게 호평을 듣기도 했어요. 이론을 경험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죠.

두 번째 과제는 유사 공모전에 초점을 맞춰야 했어요. 유사 공모전의 우수작품을 조사해 프레젠테



이션으로 3장정도 나오게 소개를 해야 했죠. 국내에서 스마트시티와 유사한 공모전을 구글과 네이버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검색한 공모전의 우수작을 유튜브에서 공모전 이름을 검색해 찾았어요. 영상을 찾아서 보니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이미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기술들이었죠. 와이파이를 통해 사람과 도시를 연결해 인명을 구하고 도시 서비스 보급을 편리하게 하는 내용의 영상이었죠.

세 번째 과제는 유튜브에서 내가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해외 동영상을 찾고 그것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쉽게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검색할 때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하는 점이었죠. 영어로 “What is the smart city?”를 검색했더니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검색결과로 나온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상의 내용은 사물인터넷으로 도시와 시민 그리고 사회를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예시로 우리에게 친숙한 사물인 가로등과 쓰레기통이 주로 사용되었죠. 가로등과 쓰레기통에 센서를 부착해 가로등시스템과 주차시스템에 사용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숙한 사물도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 저는 드론과 같이 새로이 발명된 물건이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번째 과제는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나의 아이디어가 어떤 기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서술하는 과제였어요. 저는 이 과제를 준비할 때 세 번째 과제도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What is the smart city”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 저는 스마트시티를 위해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발명을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A4용지에 발명 아이디어들을 계속 적었

죠. 하지만 제 생각에서 나온 것은 이미 있는 서비스, 제품들이었어요. 그러다가 “What is the smart city” 영상을 보고 생각을 고쳐먹었죠. 새로운 것을 발명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에게 친숙한 사물이나 서비스의 새로운 활용을 발견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우리에게 친숙한 사물 중에서 버스정류장, 신호등, 스마트폰이 생각나고 이 사물들을 어디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아이디어들을 적어보니 이미 있는 것들도 있었고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품들보다 효율적으로 떨어졌죠.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과제는 공모전과 관련된 경험담을 서술하는 과제였어요. 제 경험에서 스마트시티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경험은 심시티였죠. 심시티는 도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공상과학과 시뮬레이션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주 재밌는 비디오 게임이었어요. 심시티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스마트시티를 설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는 매우 친숙하게 다가왔죠.

중간고사 기간에는 시험대신 중간고사 제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자유게시판에 프레젠테이션을 게시해야 했어요. 중간고사 제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는 다른 과목 중간고사에 비하면 쉬웠어요. 지금까지 한 과제를 합쳐 목차를 만들고 내용을 조금만 다듬으면 됐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캡처해 자유게시판에 올렸어요. 저는 중간고사 제출물을 만들면서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생각한 공모전이 내가 조사하고 얹으로서 접근하기 쉬워졌기 때문이죠.

중간고사 다음 과제는 기말고사 전까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학우들의 중간고사 제출물에 조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과제도 처음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들을 다른 학우들의 제출물에서 찾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조언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이잖아요. 조언과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과 비등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도 과제를 해야 해서 저는 윈도우에서 메모장을 켜고 지금까지 제출된 제출물들의 주제를 나열했어요. 원하는 주제는 별로 없어서 가장 하기 싫은 주제들을 소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주제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읽어본 다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해 자료조사를 했어요. 제가 선택한 조언대상자들의 주제는 해양, 손 글씨, 책, 사진, 삼화였어요.

해양관련 공모전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조언을 할 때는 조언 대상자가 학습 파트너여서 서로 내용의 세부적인 것들을 물어보면서 했어요. 학습 파트너의 경험담을 직접들을 수 있어서 내용 이해가 빠르게 됐어요. 그리고 해양관련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 수 있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발명품이 만들어지고 펀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관심이 없었던 주제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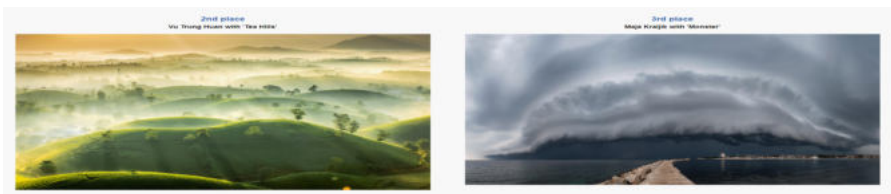
손 글씨 관련 공모전에 대해 조사할 때는 자료조사가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해외 관련 공모전 조사를 하면서 영어를 많이 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국내 유사 공모전으로 조사를 하러니 대부분의 손 글씨 공모전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어서 조연 대상자에게 알맞은 공모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외 공모전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손 글씨라는 주제 특성상 조연을 하려면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 글씨 대회, 공모전을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일본 손 글씨 대회가 내용이 독특하고 검색해서 제일 빨리 나왔기 때문에 조연내용으로 선택했어요. 그 대회는 새해마다 매년 열리는 일본 전통 서예 대회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서체를 볼 수 있었죠. 또 다른 자료를 찾다가 독특한 공모전을 봤어요.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미국에서 열리는 한글날 기념 손 글씨 공모전이었어요. 외국인과 재미한국 교포가 디자인한 여러 가지 손 글씨들을 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공모전이었어요.

책 관련 공모전에 대해 자료조사를 할 때는 해야 할 과제가 많아서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Book, Writing, Reading 이 세 가지 검색어를 돌려 써가며 뒤에 'Contest'를 적어 빠르게 해외 관련 공모전을 찾은 다음 공모전 소개와 함께 수상작들이 게시된 사이트를 알려주며 조연내용을 적었어요. 물론 프레젠테이션은 전부 읽어보긴 했지만 도무지 조연할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자료조사를 해주기로 했죠. 자료조사를 할 때는 해외 관련 영상을 찾을 때 교수님이 추천해준 방법인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방법으로 자료조사를 했어요.

사진 관련 공모전에 대한 자료조사를 할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조연대상의 프레젠테이션도 되게 깔끔해서 보기 좋았고 내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하지만 국내 사례를 찾아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연경관을 찍는 사진 공모전이 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해외 공모전을 조사했어요. 세계 사진가들이 멋진 자연경관을 찍은 사진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공모전 사이트를 찾았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 주제를 고르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경험이었어요.

"Photocrowd.com"에서 공모전 수상작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특히 2등 작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사진 같았죠. 하지만 이 사진은 실제 자연경관을 찍은 거였고 저도 언젠가 저곳에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즐기면서 하니 자료조사가 과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조연대상의 주제는 삽화였어요. 이 주제도 세 번째 과제를 할 때처럼 찾고 싶은 내용을 영



어로 번역해서 해외 우수 사례를 찾아냈어요. 제가 우수 사례를 찾은 곳은 인권 삽화들이 수록되어 있는 사이트였어요. 여러 가지 인권 삽화들을 볼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마지막 과제는 중간고사 제출물에 자신들이 받은 조언을 반영하는 과제였어요. 제 프레젠테이션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있었고 아쉬운 점에 대해 피드백을 받은 것도 있었어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는 프레젠테이션 정리나 디자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주제 선정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디자인에 대해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주제가 알맞은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 말한 피드백은 에듀에 대한 주제도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저의 메인 공모전의 구체적인 주제는 스마트시티에 에듀테크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긍정하고 조언해준 사이트를 조사했어요. 조언해준 사이트는 인천 교육청에서 시행한 2020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온라인 수업 시행과정을 기록한 내용들을 종합해둔 사이트였어요. 저는 그 내용들에서 공통된 사안들을 찾고 독특한 시도 방법을 찾아 제 프레젠테이션에 추가했어요. 주제가 스마트시티였기 때문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언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익했던 조언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보가 있는 블로그를 알려준 것이었어요. 스마트시티의 기본 요소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연과 함께 가는 스마트시티를 알 수 있어 좋았어요. 가장 독특했던 아이디어는 한 지역단위로 각 가구끼리 전기사용량을 기록해 각 가구끼리 서로 전기사용량을 알 수 있게 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경쟁을 한다는 결론까지 나온 스마트시티였죠. 학우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자료조사, 관점을 알 수 있어 좋은 과제였어요.

기말고사는 지금까지 만든 과제들을 모아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번 더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지금까지 한 과제를 중심으로 기말고사를 해결한다는 것이 저에겐 편리하고 흥미로웠어요. 이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부담은 덜고 교수님이 의도하신대로 지식을 전달했죠.

지금까지 이 강의를 소개하면서 저는 강의내용보단 과제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했어요. 그 이유는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는 강의보단 과제를 통해 수강생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만들어보는 것이 이 강의 색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생각난 경험들을 되짚어보면 저에게 많은 동기부여와 공모전에 대한 도전의식을 준 강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공모전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줘서 고마워요. 금강대학교에는 좋은 강의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손세훈 교수님의 “인간관계와 심리학”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길어짐에 따라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지쳐가고

금강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좋은 강의, 인간관계와 심리학

지형준(글로벌융합학부)

교과목 | 인간관계와 심리학(손세훈 교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심리 테스트 등을 통하여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조한 힐링할 수 있는 강의인 “인간관계와 심리학” 강의를 소개하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에 관하여 막연하게 관심 정도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비전공자에게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론적인 내용 대신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MBTI 검사 등의 다양한 심리 테스트 등을 활용하여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심리적 성향을 알아보고, Google VR Studio 등을 이용한 VR 여행, 미술작품 관람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자신의 성격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신의 성격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입니다.

16주의 시간 동안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3주차, “구글어스로 여행하기”, 그리고 2주차, “자신의 MBTI 알아보기”입니다.

Google Earth VR Studio를 사용하여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 후 왜 가고 싶은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본인의 MBTI 성향을 고려하여 적는 간단한 과제를 작성하는 3주차 강의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을 다시 복기하는 시간을 통하여 바쁘게 지내며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들, 즉 초심을 찾게 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진 MBTI 성향으로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게 해준 활동입니다.

또한, 2주차 “나의 MBTI 알아보기”는 심리 테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MBTI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적는 간단한 과제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리더와 팔로워를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 늘 팔로워 역할을 맡던 제가 리더 역할을 자청하여 팀을 이끌었던 경험, 그리고 팀을 이끄는 과정에서 경쟁 대신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때의 경험이 평소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변화를 준 것을 다시 생각하며 한층 더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글로 적는 것은 단순히 과제를 하고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닌, 살아가며 겪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심리학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었고, 대인관계 그리고 학교생활을 넘어 더 나아가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헤쳐 나갈 때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강의 특성상 대면 강의보다 상대적으로 학우들과의 소통이 적기 때문에 집중력 등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본 강의와 다른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LM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도적인 학습으로 인한 동기부여 원인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LMS를 통하여 다른 학우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습 현황을 점검할 수 있었고, 자칫 밀릴 수 있는 강의를 밀리지 않고 제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한 금강인에게,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지친 금강인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인간관계와 심리학” 강의를 추천합니다.

나 그리고 타인을 위한 수업

유채연(사회복지학전공)

교과목 | 응급구조학(김성호 교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험에 다칠 수 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위험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바로 ‘응급구조학’이다. 응급구조학 수업에서는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생기는 상처나 부상, 질병 등에 대처하고 처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수업이다. 제목을 ‘나 그리고 타인을 위한 수업’ 이라고 적은 이유는 말 그대로 나와 타인의 건강과 응급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 응급구조학을 수강신청 할 때는 단순히 학점 채우기 용으로 신청했다. 크게 다치거나 아팠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응급구조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심폐소생술이나 지혈, 화상 등의 실생활에 유용한 응급처치에 대해 배우게 되니 관심이 생겼다. 특히 심폐소생술의 경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는 알았지만 정확한 팔 동작이나 횡수, 순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이 수업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방법과 순서 등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과제 중에 심폐소생술을 인형으로 연습해보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냥 교수님의 설명만 들었을 때는 힘이 많이 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비록 사람이 아닌 인형이었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많은 힘이 필요했고, 같은 동작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기 힘들어서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팔꿈치가 굽어지면서 원래의 동작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가끔 뉴스에 심폐소생술을 하여 한 사람을 살린 뉴스기사가 나오곤 한다. 그 사람을 보면 ‘너무 대단하다, 나라면 바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만약 내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내가 배운 심폐소생술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할 것 같지 않은가? 나의 행동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거 같다. 후에 심폐소생술 자격증 취득하고 싶는데, 이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꼭 따고 싶다.

또한 PRICE요법이라는 중요한 요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PRICE요법은 보호(Protection), 안정(Rest), 얼음찜질(Ice), 압박(Compression), 거상(Elevation) 이라고 한다. 이 PRICE요법은 부상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되는 요법으로 이 순서대로 처치를 하면 부상을 당했을 때 보다 빠르게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운동을 해서 다치거나 단순히 걷다가 발목을 삐었을 때도 이 요법을 통해 붓기와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다.

이 외에도 화상, 지혈, 뇌졸중, 식중독 예방,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지식들과 언제 일어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배우니 꼭 들어봤으면 하는 수업이다.

나는 이 수업을 들은 뒤로 내 몸에 대해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고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 즉 골든타임에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됐다. 수업을 들은 후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약한 화상을 입었다. 그때 수업시간에 배웠었던 화상 응급처치에서 냉수로 빠르게 씻고 얼음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억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만 전문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는 힘들지만 작은 행동이라도 하여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친다.

미래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가야할 길

예병찬(경영학전공)

교과목 | 노사관계론(임무송 교수)

올 한 해 대면 강의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취를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자취를 감춘 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강의를 수강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과제를 마감일에 겨우 제출하며 몸과 마음이 상당히 지쳤을 것이다. 나 또한 과제형 시험 답안과 레포트를 작성하며 시험을 무사히 마친 후 손목통증이 훈장처럼 남아있다. 이러한 아픔을 뒤로 하고 이번 학기를 되돌아보니 아쉽고 허탈했다. 선배, 동기, 후배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했고 교수님들과 학문적 상호작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한된 여건 속에서 무사히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직원분들과 교수님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다. 특히 올해 초빙교수로 부임하신 임무송 교수님에게 따로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다. 이번 학기의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임무송 교수님의 노사관계론이라는 과목을 학우들에게 추천하고자한다.

우선 노사관계론이 어떤 과목인지 궁금해 할 학우들이 있을 것 같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교수님이 강좌명을 노사관계론으로 설정하셨지만 경영학의 인사관리론, 행정학의 인사행정론,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다루어 주셨다. 이 강의가 흥미로운 점은 경영학 전공으로 설정되어있지만 학과에 관련 없이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학은 정치학에서 떨어져 나온 학문이지만 경영학의 논리가 들어있어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과 기본적인 기업의 구조와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알 수 있고 최근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을 익혀 면접 시사상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이 아무리 알차도 지루하면 학우들이 수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하시기 때문이다. 주제와 관련된 뉴스 영상을 보여주신 후 설명을 이어나가셨기에 주의를 환기시킨 후 더욱 집중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다. 또한, 항상 강의 마지막에 공인노무사 기출 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업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시험 답안을 채점한 후 부족한 점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었다. 교수님들이 여러 수업을 진행하시고 많

은 학생들의 과제 또는 시험에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여건상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짚막한 피드백을 남겨주신다면 학생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이번 학기의 경험 때문이다. 이번 학기 노사관계론 수업을 진행하신 임무송 교수님은 중간고사 답안을 읽어보신 후 피드백을 달아주시고 기말고사 전 짧은 강의를 통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알려주셨는데 이는 직전 시험에서 부족한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향후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교수님들이 모여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통해 깨달은 바를 학우들과 공유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실 그동안 전공 교재의 텍스트를 외우고 쓰는 방식의 시험에 다소 익숙해져 있었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그 과목에 대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학습 방식으로는 진정한 인재로 거듭날 수 없다. 4년간의 대학과정을 통해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과 4점대의 학점일까? 아니다. 난 사고력과 창의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학기의 노사관계론이 그 어떤 수업보다 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모두 레포트로 대체되었을 때 좌절감에 빠졌었다. 글쓰기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관련 주제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고사 레포트를 제출한 후 난 알 수 있었다. 교수님의 의도를 말이다. 레포트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며 스스로 답을 찾고 자신만의 의견을 정리하시길 원했던 것이었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웠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후 교수님이 기고하고 계신 칼럼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를 읽으며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기사를 찾아보던 어느 날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었다. 어느새 기말고사 레포트를 작성해야 할 때가 다가왔고 중간고사 때 나오지 않던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적어낼 수 있었다. 다른 학우들도 더 늦기 전에 과제가 없는 강의, 학점을 잘 주는 강의가 아닌 진정으로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시나브로

고수빈(행정학전공)

교과목 | 영어 인터뷰와 포트폴리오(포리 교수)

서론

조금씩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꽤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다. 그 정보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수행했던 과제가 하나의 이력서가 되고, 자신이 면접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진다.

이력서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이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능력이 직업과 얼마나 맞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포리 교수님의 영어 인터뷰와 포트폴리오 수업은 매주 하나씩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강의에서 배운 다음에 실제로 작성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영어 번역기를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문장 구조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일단 번역기를 통해서 문장을 확인한 다음, 이력서에 맞는 심화영어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무조건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적당한 사용은 추천한다.

본론

이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교수님과 자유롭게 의견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특성상 대면 수업과 달리 교수님께 직접 물어보기가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수업은 구글 드라이브의 의견 제안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

아침 수업이라서 듣기 힘들었지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 교수님의 빠른 피드백이 와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수님과 소통하는 수업은 많지 않다. 오히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서 다행이다. 대면 수업이었다면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해야 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나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 쉽게 질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완료됨

댓글

the

Bertus Fourie
Which community center? Try to put in a name. Then also use capital letters in the name.

Bertus Fourie 새로 만들기
완료된 토론으로 표시됨

답장 열기

administrative work

Bertus Fourie
joining the administration team at the center.

Bertus Fourie 새로 만들기
완료된 토론으로 표시됨

답장 열기

I'm

Bertus Fourie님이 다음 문서의 댓글에 답글을 남김

▶ **Week9 (Interview and Portfolio) - C...**

I'm a junior student majoring in Public Administration

Bertus Fourie
Reword this. Say the name of your university and where it is.

고수빈
Professor, I have a question. Currently, public official are implementing a policy of "Blind Recruitment". So We can't about my academic background in my resume and cover letter. What should I do in this case?

Bertus Fourie 새로 만들기
Hi Subin,

Unfortunately I cannot help you with this, as I'm not sure what advice to give you. In an English Resume and Cover Letter you have to include this. (I will try and do some research to find out what you can do.)

Kind regards,
Prof. Fourie

과제로 제출한 내용을 수정하라는 요청과 완료

교수님께 질문 후 답변 받은 사항

그리고 다른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영어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영어라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 학우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나도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기만 하면 그게 내 능력이지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기술, 그 후엔 나에 대한 소개와 경험, 그리고 수상내역,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글을 썼다.

기술
: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노력해서
얻을 기술

1. Time Management	I am a planner. I write a list of things to do in my diary. Based on the list, I make a timetable for the day. I then strive to complete all my tasks as assigned, and I have been good at managing my time accordingly.
2. Presentation Skills	I participated in the 2019 Employment Program at GGU. I was praised by an interviewer in a mock presentation using my administrative knowledge.
3. Decision Making	While working with various people at Geumgang University, I listen to their opinions and make decisions. This has led to good results for everyone, and I was also able to get A- grades.
4. Writing Skills	I am able to write quite successfully. Two essay contests were held at GGU in December 2018. I participated in both contests, and I won an award.
Soft Skills You Can Work On	
5. Leadership	I lack some leadership qualities, but, I am trying to improve my leadership, by taking on more leadership roles at GGU.

이력서
: 경험, 수상내역 등

Subin Go
Public Administration

SKILLS

Writing Skills ★★★★★

Presentation Skills ★★★★★

Time Management ★★★★★

CONTACT ME

[Redacted]

PERSONAL STATEMENT

I am currently majoring in Public Administration at Geumgang University in Incheon, South Korea. My goal is to use Big Data to provide administration services to local residents. The majority of my lectures are thus related to the use of computers. I have taken a number of Big Data and Document working classes during my time at Geumgang University.

Currently, Big Data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in our society or daily lives. Active Administration is also being emphasized in the administrative sector of late. After becoming an Administrative Officer, I am going to continue studying, so that I can provide convenience to the citizens of my area, by using administrative services which were created through the use of Big Data.

EXPERIENCE

27 September 2018 - December 2018
Cultural Asset Commentator
(Gyeongju National Museum)
I reached out to visitors to help them understand certain aspects.

자기 PR 글	<div>Personal Statement</div> <p>I am currently a student majoring in Public Administration at Geumgang University in Nonsan, South Korea. I am delighted to be doing administrative work. Currently I am working on improving my administrative knowledge, which all administration officials require. I am also learning about and developing my personal and technical skills to ensure that I will be able to assist people in the best way possible. So, other than the subjects for my major, I often take computer and writing classes.</p> <p>While studying at Geumgang, I have acquired the skills required to become a more competent public official for any future public institution. I think these skills will be helpful in my future career.</p> <p>Geumgang University also offers Computer Utilization Ability courses and Big Data courses that enhance one's ability to use computers in our society. I have taken a large number of these courses and after taking these courses, I learned how to collect information using Big Data such as with JAVA and PYTHON and how to use Big Data effectively. So, I was able to improve my computer skills which will help me in the future.</p> <p>I have also been able to enhance my leadership skills by playing the role of a leader while I was performing team activities. As a leader I encouraged, guided, cheered on, and directed my team members through role discussion.</p>
---------	--

이렇게 나의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후에 열어서 확인도 가능하다. 과제를 열심히 하면 모두 다 나의 미래를 위해 보탬이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영어 인터뷰를 교수님과 직접 하면서 면접 준비 후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쳤으면 하는 나의 준비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비대면 수업이라면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로 바꿨으면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수업을 한다면 과제에 시간을 쏟을 후에 주말이 와서 질문을 못한다. 따라서 교수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는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어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과제 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월~수 사이로 시간표 배정을 바꿨으면 한다.

이 수업은 다른 교양과목에 비해 과제가 많은 수업이다. 과제가 많은 수업인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의 이력서가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이 수업 들어봐요! 노동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다윤(사회복지학전공)

교과목 | 노동정책론(임무송 교수)

노동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이 해주시는 노동정책론 수업!

노동정책론 수업은 한 주에 녹화 강의와 실시간 특강이 이뤄지는 다른 과목과는 차별화된 수업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차별화된 수업을 제공해주신 교수님은 대체 누구실까? 특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매번 교수님에 대해서 이 분야의 최고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만들 때 교수님도 계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궁금해서 교수님의 이름을 검색해본 적이 있었다. 금강대학교에 공공정책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는 임무송 교수님을 말이다. 검색해보니 왜 교수님이 이 분야의 최고라는 것에 바로 동의를 하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궁금하면 검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녹화 강의로 노동정책의 기초를 비롯해 구조조정, 해고, 비정규직,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최저임금제도,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 기업문화, 노동조합, 노동쟁의, 부당노동 등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문제와 우리가 보장받는 여러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께서는 매주 진행되는 녹화 강의와 비슷한 분야의 특강을 매주 제공해주셨다. 한국고용정보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승강기안전공단,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 등과 관련된 분들이 zoom을 통해 강의를 해주셨다. 녹화 강의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zoom을 통한 강의로는 전체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 구체적으로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다양한 예시들,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한 특강을 들을 수 있었다.

제자들에게 대한 사랑이 넘치는 교수님의 배려!

중간고사가 레포트로 대체 되었다. 교수님께서 레포트를 확인하시고 zoom 강의를 통해 레포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마음 같아서는 한 명, 한 명 다 피드백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며 아쉬워하셨다. 대신에 다음 수업에 마지막 영상으로 레포트 쓰

는 법을 주제로 강의해주셨다. 중간에 자세한 영상도 삽입해서 학생들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다음 기말고사 대체 과제는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 또한, 후에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공지하셨을 때, 학생들이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찾아 올려주시고, 구체적인 파일까지 제공해주셨다.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교수님의 넘치는 배려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들어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다.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런데 노동정책론 수업을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노사관계 팀장님의 특강을 듣게 되었다. 가장 집중해서 들은 특강인 것 같다. 나중에 나도 노동자 중 한 명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노동자의 입장을 더 고려하게 되고, 생각해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 특강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강의해줘서 새롭게 느껴졌고,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 노동정책을 수용하고 정책에 맞게 회사 제도도 개선해가며, 회사와 노동자를 위해 힘쓰며, 노동조합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과 사람들도 노동정책론 들어봐요~

위에서 말했듯이 고용과 노동에 관심이 없다. 나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에 취직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볼 나를 생각하며 녹화 강의와 특강을 들었다. 특강으로 녹화 강의보다 가볍게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들으며, 점점 고용과 노동, 경영자와 노동자, 이와 관련된 정책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말했듯이 노동정책론 수업을 들으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문제와 우리가 보장받는 여러 정책에 대해 알게 될 수 있다. 후에 우리가 노동자가 될 텐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비대면 수업으로 들었기에 특강이라는 더 좋은 기회도 얻게 되었다. 후에 노동정책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노동자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정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기에 행정학전공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사람들도 일반선택으로 이 수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해주고 싶다.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강의

서건희(불교인문학부)

교과목 |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제(나지용 교수)

현재 본인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방콕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본인은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입학하기 전에 터진 코로나 사태를 처음 뉴스로 접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마스크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거나 혹시나 밖을 못나갈 것을 대비하여 장을 보아 냉동식품 같은 것을 구매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하였다. 여기서 본인이 폐인의 집안 생활 만렙의 백수 같은 놈이었으면 여기서 고민을 멈출 것이지만 본인은 당시 1학기 강의 수강이라는 관문이 남았고 즐겁고 상쾌한 대학수업 라이프를 즐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어찌 짜두면 금요일 공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나머지 하나는 이 상황에 적합한 것을 듣고 본인의 정신적인 요소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킬 강의를 찾게 되었고 그 강의가 바로 불교이론의 수행과 실제이다.

불교이론의 수행과 실제는 본인이 당시 머리를 굴리며 1,2학년을 빠르게 듣고 3,4학년을 즐겁게 보낼 생각으로 찾던 와중 이름이 느낌이 확 와서 신청을 하게 된 강의이다. 솔직히 강의 이름만 보아서는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잔뜩 있었다. 일단 본인이 불교이다 보니 상관은 없는데 당시에 이미 불교관련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5개였고 그 이상 듣게 된다면 잘 건조된 쿼크다스보다 더욱 부서지기 쉬운 본인의 멘탈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모 아니면 도라고 도박성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답은 훌륭하였다. 본 강의는 나지용 교수님의 강의로 강의 이름에 대하여 정말 성실한 강의이다. 강의 이름처럼 불교의 수행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고 배운 것을 토대로 복습 겸 우리들이 실습하고 느끼는 수업이다. 집안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장기간 생활과 바깥의 따듯한 햇빛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우울감에 대한 대처가 꽤나 필요하다. 본인이 원래 생각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간 생활로 인하여 다소 우울감과 불면증이 생기면서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말했듯이 이러한 감정을 컨트롤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검색기관을 이용한 검색을 통한 결과 역시 명상이 답이라고 한다.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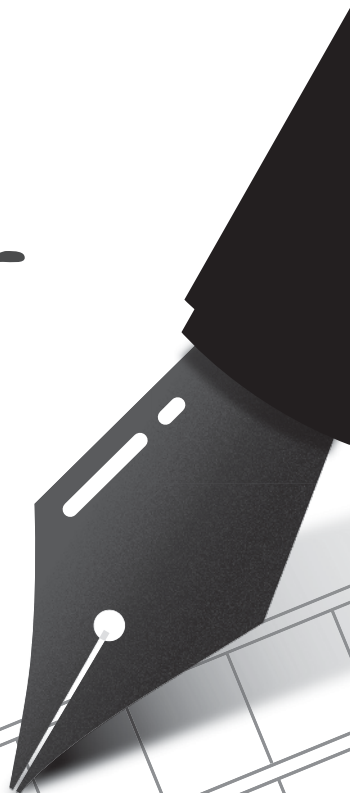
을 하면 수행이며 그러한 명상을 다루는 종교는 불교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명상과 관련 있고 자세히 가르치는 강의가 바로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제이다. 또한 나지용 교수님의 조용하면서도 훌륭한 강의 목소리는 잠이 오기는커녕 꽤나 마음에 릴렉스를 준다. 현재 상황에서는 꽤나 좋은 강의라고 본다. 불교에서의 명상에 대해 다양한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배우다 보니 그 날의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명상을 할 수 있으며 교수님께서는 죄송할지 모르지만 본 강의는 강의보다는 마음의 릴렉스를 주는 힐링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강의이다.

본인의 에피소드를 다루자고 하면 이 강의는 명상을 주로 다루는 강의이다. 그렇다 보니 비대면을 통한 시험을 볼 때도 교수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대체 과제를 주셨고 과제 주제도 수업에서 들은 명상들 중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명상(오정심관) 세 가지를 고르는 것이다. 논문 형식을 쓰는 것이며 논문은 있는 사실을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에 나온 명상(오정심관)을 전부 실천 해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TMI를 하자고 하면 오정심관은 다섯 가지 번뇌인 욕심, 화, 어리석음, 교만, 잡념같은 것을 없애는 수행(명상)인데 다섯 가지 명상을 모두 수행을 하니 불안한 마음 요소가 제거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본인은 원래 화를 표출을 안 하지만 화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며 잡념이 또한 쓸 때 없이 많은 인간이다. 이러한 본인의 단점요소가 지금 상황으로 인하여 배가 되었고 스트레스가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위험요소까지 오게 되었다. 허나 1학기의 이 강의와 시험과제를 통해서 몸의 변화가 왔는데 첫 번째는 다소 불안정한 마음이 크게 진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명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효과이지만 본 강의는 평범한 명상을 넘어서 다양하게 본인의 상황에 어울리는 명상법을 통해 진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예로 화와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 오는 번뇌에 대한 수행인 자비관일 경우 간단한 명상 자세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간단하지만 꽤나 효과적인 수행법이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타인의 행복을 보고 화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 수행법은 단순한 상상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러한 예시와 같이 상황에 맞는 명상을 알려주시며 수행방법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현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강의는 불교관련 과보다는 타 과의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데 동기들 및 선배들의 말을 보니 불교관련이 아닌 과의 사람들은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제는 이들에게 어울린다고 본다. 불교라고 안 듣는 것보다는 마음의 힐링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짧은 시간에 얻는 명상을 통해 치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분야

학습 노하우





최우수상

혼자도 공부하고 같이도 공부하고

이다윤(사회복지학전공)

혼자도 공부하고 같이도 공부하고

이다윤(사회복지학전공)

교과목 | 행정법1, 2(김성률 교수)

나는 행정학전공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원하는 학과가 없었기에 가장 많은 강의가 열리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과를 선택하였다. 듣고 싶은 전공 강의만 선택하여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행정학전공을 전공으로 선택한 후, 가장 처음으로 선택한 강의는 행정법1이다. 선택한 이유는 수강하는 학생이 많아서였다. 부득이하게 남들보다 늦게 수강 신청을 하게 되어, 영어, 제2외국어, 컴퓨터 등 수강 인원 제한이 꽤 찬 수업은 듣지 못했지만, 학생 수를 확인하며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행정법1을 선택하게 되었다. 당연히 수강 신청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작성해놓은 강의계획서를 읽었지만, 나는 꼭 OT를 듣고 수업을 들을지 최종 선택을 한다.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서 행정학 전공에 왔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수업은 최대한 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도 내가 꽤 긍정적인기 때문에, 평가방식이 정말 까다로운 것이 아니면 대부분 처음의 선택대로 듣는다.

내가 행정법1을 수강 신청했던 때로 돌아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한다. 1학기의 수업은 비대면이 계속될 것을 모르고 대면일 상황을 고려하여 강의계획서가 올라와 있었다. 다음은 행정법1의 교과 운영방식과 수업 평가 부분을 강의계획서에서 가져온 것이다.

〈교과 운영방식〉

개요 (Course Format)						
강의 Lecture	토론/토의 Discussion	글쓰기 Writing	발표 Presentation	실습 Practice	프로젝트 Project	기타 Others
60%	10%	10%	10%	0%	0%	10%

수업방법 (Course Description):[200~300자]	
<p>행정법학의 기초개념의 이해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법1의 체계와 구성원리 및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념과 사례를 연관시켜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련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의 및 질문 중심으로 진행하되,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과제를 부여하거나 소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p>	

〈수업 평가〉

평가요소 (Grading Criteria)				
출석 Attendance	평소 Assignments	중간고사 Mid-Term	기말고사 Final	기타(참여도) Others
20%	10%	30%	30%	10%
2. 평가방법 (Grading Polices)				
1.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3. 발표 및 토론		2. 출석 및 수업태도 4. 기타		

이 두 가지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맞고, 내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지를 표에 쓰인 내용을 확인하여 생각해본 후 수강 신청을 할 것인지 수강 신청 후보에 넣을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강의계획서의 다른 내용도 모두 꼼꼼히 읽어보지만, 특별히 이 두 표를 가져온 이유이다.

비대면이었던 이 강의는 매주 녹화된 강의를 자료와 책을 보며 듣고, 매주 과제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2, 3주차의 과제는 수업을 듣고, 특정 단어의 의미를 쓰고 예시를 찾는 비교적 간단한 과제였다면, 대면 수업이 점점 미뤄지면서 4주차 과제부터는 판례를 찾아 정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한 학기가 진행되면서, 시험도 과제로 대체되었다. 평소에 하던 과제랑 같은 과제로 말이다. 그렇게 과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하지만, 나는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앞 주차의 과제는 망했었다.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처음이라 낯선데 강의를 들어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단어에 대해 과제를 하려니 너무 힘들었고, 막막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완성해서 제출한 과제에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다행히도 다른 수업과 다르게 김성률교수님은 과제에 점수를 매기면서 피드백까지 해주셨다. 그래서 내 과제에 어느 부분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듣는데 모두에게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것을 아니, 교수님의 노력에 보답해야겠다 마음과 점수를 올리겠다 마음으로 다음 과제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에 쓴 대로 4주차부터는 과제가 판례를 찾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판례를 평생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찾아오라니 너무 막막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찾으라고 알려주셨지만, 어디에 검색하고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 모르니 첫 판례를 찾는 과제를 할 때 정말 힘들었고 정말 오래 걸렸다. 이렇게 판례를 찾아 정리해서 제출했더니 점수가 100이 아니었다. 나는 판례를 요약하고 수업내용을 정리하라는 과제 내용에 충실하게 판례를 요약하고 판례에 나온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썼다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부족했던 것이었다. 교수님의 피드백에 본인의 생각을 같이 써주면 좋겠다고 쓰여 있었다. 이때 이 피드백을 읽고, 정말 의아했다. 판례를 읽고 생각

이 생기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법을 집행한 것뿐이고, 법에 맞는 판결이 나온 것 뿐이기에, 당연히 ‘그렇구나’라며 수긍하고 넘어갔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런 수긍한 내용이 쓰여 있길 바란 것이었다. 나는 이 당시 피드백을 읽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100점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몇 주동안의 과제가 100점을 맞지 못했더라도, 아직 남은 과제가 많았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꼭 1번은 100점을 받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수님께서 매주 써주시는 피드백을 읽고 다음 과제에 반영하기를 반복했다. 그랬더니 학기가 끝나갈수록 100점을 맞는 과제가 생겨났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과제를 하며, 100점을 맞는 과제가 생겼지만, 중간에 한 번 위기가 있었다. 과제마다 찾아야 하는 판례 개수가 달랐는데 찾아야 하는 판례의 수가 정말 많았던 위기가 생긴 것이다. 찾아야 할 판례가 많아지는 날이면, 과제에 익숙해지지 않았고, 어렵다고 느껴서 과제를 하기 전에도 과제를 언제 다 끝낼 수 있을지 걱정부터 했다. 이때 이 걱정을 과제를 제출할 때까지 계속 했던 것 같다. 평소의 판례 개수가 평균적으로 6개였다면, 이때는 18개였다. 그런데 이때 배운 수업의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아무리 검색해도 마땅한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아지고, 힘들었던 것 같다. 끝내는 찾을 수 있을 만큼만 찾아서 18개의 개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제출하였다. 유일하게 제시된 판례의 개수를 다 채우지 못한 과제였다. 내가 이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18개를 모두 채울 자신은 없다. 그렇기에 할 수 있을 만큼만 채워서 낸 과거의 내가 원망스럽지 않고, 지금에 와서 조건에 맞지 않는 과제를 제출한 거에 대해 후회하지도 않는다.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지만, 생각보다 점수를 낮게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학기 초반과 비교하여 후반에는 100점의 개수가 훨씬 많아졌다. 100점과 100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가 많이 생긴 것을 보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점이 나왔을 때, 정말 기뻐다. 과제의 평균점수가 낮아서 학점도 낮은 것이란 걱정을 계속했는데, A+가 나왔다. 예상 밖이었다. 내가 열심히 판례를 찾고,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과제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교수님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다.

1학기의 행정법1 강의가 끝나고 나서 2학기에 행정법2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다. 같은 교수님의 같은 수업이니 당연히 1학과 연결된 내용을 할 것 같았다. OT를 들어보니, 예상과 같았다. 1학과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평가방식에 익숙한 행정법2를 듣게 되었다. 행정법2는 학생들이 판례를 찾아 정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아셨는지, 찾아야 하는 판례의 개수를 대폭 줄여주셨으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제시해주셨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조건에 맞게 판례 요약, 법리적 쟁점, 생각 이렇게 3가지를 쓰는 것이 행정법 2의 핵심이었다.

행정법1을 수강하였지만, 아직도 수업내용에 맞는 판례를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고, 찾는 판례가 수업내용과 연관된 판례인지 확인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2학기에는 금강 이음새 학습 튜터

링, 고등법원에 튜터로 참여하게 되었다. 행정법2를 듣는 3명이 모인 튜터링이었다. 모두 1학기에 행정법1을 들어서 자신만의 팁이 조금씩 있었다. 첫 튜터링 때 이 팁들을 공유했다. 각자 어떻게 판례를 검색하는지, 어디서 검색하는지 등등을. 튜터링은 수업내용을 복습하고, 판례를 찾고 판례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의하고 우리가 배운 내용 중 어떤 것이 적용되었는지 유추해보고, 헛갈리는 판례는 튜터링 중에 공유하여 우리가 배운 내용과 맞는 것인지 서로 확인해주고, 못 찾는 판례는 상대방이 찾은 것 중에서 공유해주거나, 더 많이 찾아 나눠줬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듣는 한 조력자를 2명이나 얻은 것 같아 모든 과제를 할 때마다 큰 위안이 되었다. 또한, 각자가 제출한 과제의 피드백 중 보완할 점이 나온 것을 공유하여, 다음 과제에서 모두가 그 점을 실수하지 않도록 했다.

그래도 2학기에는 1학과와 다르게 조력자들과 함께하며, 요령이 생겨서 과제를 쉽게 할 수 있었다. 과제를 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다. 튜터링 시간 내에는 과제를 완성할 수는 없었지만, 튜터링이 있는 날, 서로 도와가며 수업내용과 연관된 것이 확실한 판례를 찾아놓았다. 그리고 글로는 쓰지 못했지만, 토의를 통해 말로, 머릿속으로 판례에 대한 내용과 법리적 쟁점과 생각을 대충 정리할 수 있었다. 튜터링이 끝나고 난 후에, 구성원들과 나눈 내용으로 판례를 요약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토의 때 나눈 내 생각을 작성하여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나름 체계적으로 과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행정법2도 행정법1과 같이 시험은 평소와 같은 과제로 대체되었기에 시험에 대한 부담은 다른 과목에 비해 적었고, 많은 과목 중 유일하게 매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져 다음 과제에 바로 교수님의 조언을 적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이렇게 공부하며 내가 강의를 들으며 배운 내용을 과제를 통해 판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었고, 나의 의견과 비교하며 판례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수님의 피드백으로 글을 더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게 되었다.

1학기에는 나 혼자서, 교재와 제공된 자료를 보며 강의를 듣고 처음 배우는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후에 다시 중요한 부분과 과제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교재에서 찾아보고, 예시 판례를 읽고 어떻게 검색할 것인지 구상했다. 하지만, 새로운 과제에 어려움을 느꼈고, 판례를 잘 찾지 못해 시간도 오래 걸렸다. 또한, 법이라는 과목이 처음이어서 내용 그 자체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고, 판례의 말투도 어색했다. 학교였다면, 같이 수업 듣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볼 수라도 있었겠지만, 비대면이어서 주변 사람 중 행정법1 수업을 듣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찾는 것도 번거롭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기도 미안했다. 그래서인지 더욱 혼자 하게 된 것 같다. 그렇기에 초반의 과제 성적이 낮았다. 하지만, 낮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계속하여 다음 과제에 반영하고, 그다음 과제에 반영했다. 그 결과 과제의 점수는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혼자서 천천히 점수를 올린 것이다. 갑자기 점수가 100점이 된 것이 아니다. 85, 90, 95, 100

점 점수도 다양했다. 그렇기에 중간중간 대충할까 생각도 했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지 고민도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었다.

위와 다르게 2학기에는 3명이 같이 공부했다. 같은 과목을 듣는 사람들이었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모인 것이라, 부담없이 물어볼 수 있었다. 튜터링 전에 강의를 듣고, 줌으로 모여서 어떤 것을 모르겠는지 이야기하며,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았다. 가장 큰 도움은 판례를 어떤 단어로 검색해야 하는지 공유한 것이다. 개인마다 판례를 검색하는 단어가 달라서 잘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판례를 잘 못 찾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어떤 단어를 검색해야 하는지, 어떤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는지 공유하는 것으로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1학기의 경험과 튜터링 구성원과 노력으로 2학기는 3명 모두가 모든 과제에 100점을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학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감을 못 잡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던 반면, 2학기에는 서로 조언해주고, 확인해주면서 과제에 대한 완성도도 높아지고, 과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튜터링 사람들끼리 행정법2 외에 겹치는 과목에 대해서도 서로 편하게 물어보며 공부할 수 있었다. 셋 다 공통으로 공부된 영어2, 두 명이 겹친 과목으로는 헌법사례분석과 정부혁신론 등이 있었다. 비대면으로 같은 수업에 누가 있는지 몰라 조언을 얻기 어려웠는데 같은 학과 학생이 하나의 같은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모여서 여러 과목을 함께 공부하며 조언을 얻고, 조언을 해주니 혼자 해야 했던 공부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었던 것 같다.

1학기의 공부와 2학기의 공부는 혼자인지 같이하는 것인지의 차이였다. 나는 두 학기 모두 만족한다. 1학기의 행정법1과 2학기의 행정법2 모두 매주 한 과제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에 성취감이 높은 것 같다. 혼자 하는 것은 더 큰 성취감과 뿌듯함이 있는 반면에 성장이 조금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같이 하는 것은 서로에게 조언해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을 찾자면, 잠시 잠깐 다른 길로 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계속된 공부 속에 잠깐의 수다는 괜찮을 것 같다.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빠른 성장이 필요하고, 처음 접하는 내용이며, 혼자 하기 벅차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다. 나에게 행정법은 혼자 하기에는 발전이 느린 과목이었고, 이것을 2학기에는 튜터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수상

당신이 투자한 시간과 열정만큼 결과가 나온다.

조우석(FTA 시장전공)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고수빈(행정학전공)

당신이 투자한 시간과 열정만큼 결과가 나온다.

조우석(FTA 시장전공)

교과목 | 소프트웨어공학(박태우 교수)

우리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교성적을 잘 맞고 싶어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등 어떠한 것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고 싶어한다. 만약 당신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라. 결과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 당신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2020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박태우 교수님의 소프트웨어 공학을 듣고 깨우쳤다.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수업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에는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의 여섯 단계를 거치는데 이러한 각 단계에서 어떠한 것을 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수업의 핵심이었다.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은 IT 전공 3학년 수업으로 타전공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필자 또한 주전공이 IT가 아니어서 이 수업을 처음에 들었을 때 많이 힘들었다. 초반에 주로 다루었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각종 모델명들은 필자에겐 매우 생소한 단어들이었고 이것을 이해하는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학생으로 나뉘어 지게 된다. 어차피 주 전공 수업도 아니고 내용도 뻘새니 B0만 맞을수 있게 그냥 대충대충 할 것만 하면서 포기하는 자와, 아무리 힘이 들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는 학생이다. 필자는 여기서 후자에 속한 학생처럼 학습을 하였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에게도 후자와 같은 학생처럼 학습을 하기를 추천한다. 그러면 몇 독자들을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많으면 좋은 결과를 못 받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도는 해보았는가?" 이다. 옛말에 필자의 심금을 울렸던 문구가 '해보지 않아서 후회할 바에야 해보고 후회하자.'였다. 시도도 하지않고 지레 겁을 먹어 포기하는 마음가짐은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실력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본인보다 그만큼 더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그들과 동등한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만약 엄청난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그때는 본인이 어떠한 노력들을 얼마나 했는지 기억해 보길 바란다. 단순히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마인드만 가지고 학업에 임했는지 본인 스스로 회고해 보길 바란다.

공부를 할 때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한다. 공부는 단순히 많은 시간 동안 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 중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학업을 하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한다. 몇 학생들은 답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답을 구하기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들은 멀리한다. 하지만 결국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답을 구하기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들만 나온다. 그러니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 나올것 같은 것들을 먼저 찾아라. 그 다음 찾은 것들을 중심으로 나만의 서브 노트를 하나 작성해라. 서브 노트를 작성하면서 개념을 한번 더 정리하고, 나중에 서브 노트만 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가 다 떠오르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업을 해야 본인의 머릿속에 지식이 오래 남는다. 필자는 2016년에 금강대학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많은 수업들을 들었지만 2020년인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수업 내용들은 전부 당시 필자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나만의 노트를 만든것들만 기억에 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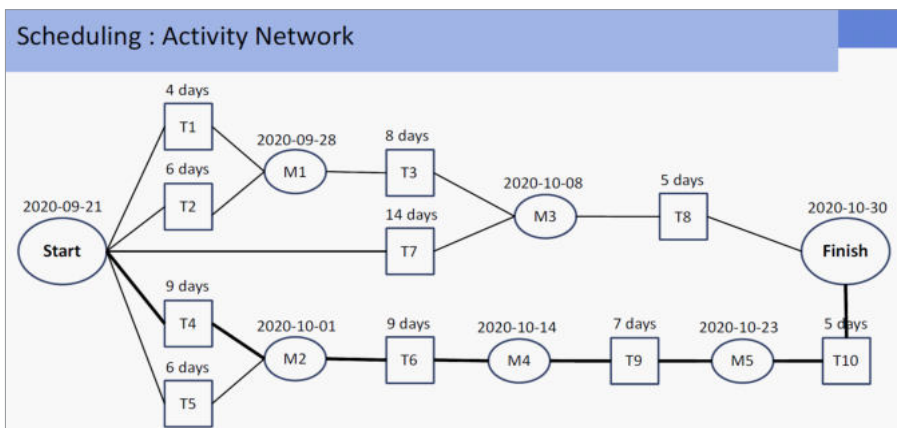
필자는 학업을 할 때 예습과 복습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긴다.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예습과 복습만 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는 다들 잘 알지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예습을 하게될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을 선행학습하자니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겠고 또 내용도 읽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 본 수업때 제대로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습을 간과한다.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예습을 통해 앞으로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큰 틀과 흐름 정도는 파악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차후 듣게되는 본 수업때 더 빠르게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도 알 수 있으며, 본 수업을 듣는 그 당시에 바로 복습까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하듯 예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습이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차츰 기억에서 지워져 간다. 우리가 아무리 예습을 열심히 하고 서브 노트를 잘 정리해 봤자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아, 이거 아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말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복습을 하지 않아서 내용은 아는데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습을 통해 까먹지 않고 계속 필요한 내용들을 기억시켜야

한다. 그러면 복습은 어떻게 해야할까? 복습은 못해도 3회 이상은 해야 한다. 첫 복습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면서 저번에 배웠던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상기 시키고 두 번째 복습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 표시를 하면 필요없는 부분을 지운다. 그리고 세 번째 복습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표시된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체크한다. 그러면 우리는 핵심적인 부분을 최소 4번 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사과' 하면 바로 'apple'이 떠오르듯이 해당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 주입하면 절대 까먹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이 IT 계열 수업이어서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내용도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이러한 수업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복습을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내 진로는 IT분야도 아닌데 내가 굳이 열심히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필자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 4주차 때였다. 교수님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계획' 단계이니,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케줄링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 ppt로 과제를 제출하시라고 하셨다. 스케줄링을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스케줄링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필수적으로 완성되어야 다음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개발 총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또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언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할당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당시 작성했었던 스케줄링 과제의 일부

이 과제를 받았을 당시에 필자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왜냐하면 과제로 주신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교재에도 없던 내용이었고 그저 교수님께서 수업 때 설명해주신 것과 참고용 pdf파일로 나만의 스케줄링을 만들어야 했다. 따라서 필자는 구글 및 네이버에 스케줄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각종 사례들을 검색 및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스케줄링을 만들었다. 이후 스케줄링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수십번 검토를 하였는데, 시계를 보니 이 과제 하나를 완성 시키는데 약 7시간을 소모하였다. 다 만들고 나니 이 과제는 5점 만점인 사소한 과제였고 앞으로 이 지식을 활용할 때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 일명 현타가 왔었다. 그러나 이 스케줄링을 정말로 활용할 때가 있었다. 필자는 2020년도에 학생회 활동을 하였다. 11월 중순에 학생회에서 E-sport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케줄링 과제가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행사를 준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했던 것은 행사 계획이었다. 경기 종목이 몇개인지, 각 종목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떤 종목이 우선적으로 끝나야 총 행사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지 등을 계획해야 하였는데, 소프트웨어 공학 과제로 했던 스케줄링을 E-sport행사 준비에 대입시키니 어렵지 않게 행사 계획을 구성할 수 있었고 행사를 진행하는 임원들의 타임 테이블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필자는 세상에 필요없는 지식은 없고 언젠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교수님께서서는 2주에 한번씩 과제를 내주셨는데 과제의 대부분은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레포트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레포트 하나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해서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만 힘이 들었지 레포트를 계속 쓰다보니 어떻게 레포트를 써야하는지 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더 완벽한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스스로 레포트 작성하는법을 찾고있는 나 자신을 보게되었다. 따라서 다른 수업에서도 레포트를 작성하라고 과제를 줬을때 레포트를 써야한다는 두려움은 없어지고 레포트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필자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진 하고 저진 하지 말자 같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지 말고, 모든 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다 살이 되고 빠가되는 값진 경험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고수빈(행정학전공)

교과목 | 행정법2(김성률 교수)

< 머리말 >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누구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때가 존재한다. 성적과 관계없이 올 수 있다. 이번 학기에 제가 겪었고, 현재도 그런 시점에 있다. 이런 시기에 가장 많이 든 생각은 바로 이것이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 지금쯤 모두 놓아버리고 있겠지...”라는 생각이다.

2020학년 2학기 초반만 해도 꿈꾸는 직업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의욕적인 삶을 살았다. 2020학년도 2학기인 나는 학습튜터링과 고시반에 속해서 공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 외에도 친구와 줌으로 공부를 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러나 현재는 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그래도 나의 감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열심히 해왔다. 하지만 함께 하던 친구들의 눈에는 다 보였는지, “예전과 달라졌네. 고민 있어?” 라고 물어왔다. 튜터링에서 튜터로써 활동했지만, 오히려 튜터들에게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 또한, 고시반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공부하다 보면 다른 학우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모습에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다짐도 한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지가 중요한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방황하고 무기력한 시기가 올지 모르며, 그런 상황에서 함께 달려가는 학우가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을 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걸 추천하기 위함이다.

< 본 글 >

본 글은 행정학전공 전공과목인 김성률 교수님의 행정법2를 이번 2학기 동안 공부한 방법을 토대로 기술한다. 기술 내용은 학습 과정&학습 내용, 발전된 나의 모습 순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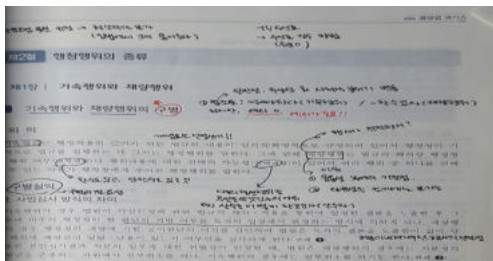
1. 학습과정 & 내용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강의를 듣는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님들에 따라서 용어를 어렵게 설명하는 분이 있고, 전공 과목 특성상 낯선 용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더 나은 전공지식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번 학기동안의 학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강의를 듣고, 강의 자료를 토대로 튜터링 자료를 만들고, 과제(판례 정리)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 마지막 코멘트를 통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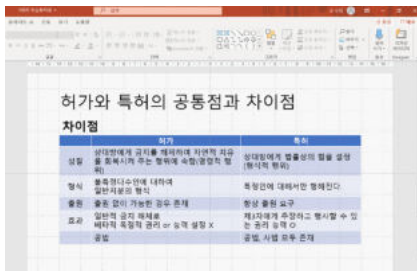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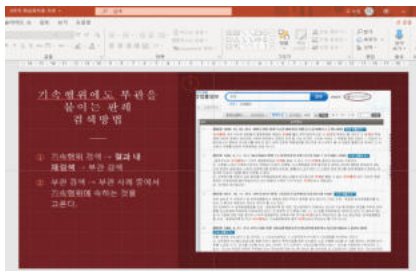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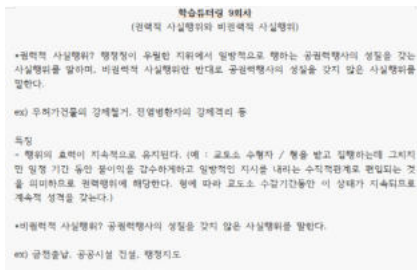

첫 번째, 강의를 듣는다.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교재와 강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행정법은 특히 법 용어이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통해서 교수님이 쉽게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볼 수 있다. 그 후 강의교재를 통해 법 전문 용어로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쉽다. 인터넷에서도 정리된 내용이 있지만 교수님이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 또한 다르다. 따라서 인터넷은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 강의 자료를 토대로 비교과 프로그램(튜터링)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3-5인이 할 수 있는 금강이음세 학습튜터링과 2인이 할 수 있는 동반튜터링이 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3-5인이 할 수 있는 금강이음세 학습튜터링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매주 강의내용과 강의 자료를 토대로 보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판례를 찾는 과제가 주를 이루는 과제이기 때문에 검색하기 쉬운 방법 또한 공유했다. 그대로 적는 것보다 표를 이용해 한눈에 표로 정리하거나, 사례를 찾아서 예시를 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질문할 것 같은 것은 Q&A 형식으로 정리해서 보면 편하다.



< 교재에 직접 필기한 사진 >

한 가지 TIP이 있다면,
강의 자료에 직접 필기하는 것보다 교재에 필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강의 자료에 필기하면 두 가지 자료를 같이 봐야 해서 번거롭지만 교재에 필기하면 책에 적혀 있는 어려운 용어도 쉬운 용어로 볼 수 있다.

 <table><thead><tr><th></th><th>허가</th><th>특허</th></tr></thead><tbody><tr><td>성질</td><td>상당인에게 권리를 제한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에 부응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td><td>상당인에게 법률상의 힘을 인정 (독점적 권리)</td></tr><tr><td>영역</td><td>물적 재산으로서 대량에 관한 것</td><td>특정인에 대하여만 행해진다</td></tr><tr><td>목적</td><td>공공복리에 관한 것</td><td>영리 목적</td></tr><tr><td>요건</td><td>일반적 공적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여 가능</td><td>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인정</td></tr><tr><td>방법</td><td>공법, 사법 모두 존재</td><td></td></tr></tbody></table>		허가	특허	성질	상당인에게 권리를 제한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에 부응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	상당인에게 법률상의 힘을 인정 (독점적 권리)	영역	물적 재산으로서 대량에 관한 것	특정인에 대하여만 행해진다	목적	공공복리에 관한 것	영리 목적	요건	일반적 공적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여 가능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인정	방법	공법, 사법 모두 존재		 <p>기술선행에도 부패를 불러오는 판례 검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기술선행 판례 → 법조 내 검색 → 법조 검색2. 판례 검색 → 판례 검색 결과에서 기술선행에 속하는 것들 고른다.
	허가	특허																	
성질	상당인에게 권리를 제한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에 부응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	상당인에게 법률상의 힘을 인정 (독점적 권리)																	
영역	물적 재산으로서 대량에 관한 것	특정인에 대하여만 행해진다																	
목적	공공복리에 관한 것	영리 목적																	
요건	일반적 공적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여 가능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인정																	
방법	공법, 사법 모두 존재																		
<p>〈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하는 표〉</p>	<p>〈검색 방법 정리〉</p>																		
 <p>학술진흥법 9위차 (권역적 사실행위와 비권역적 사실행위)</p> <p>•권역적 사실행위? 행정청이 수행한 지휘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행사의 성질을 갖는 사실행위를 말하며, 비권역적 사실행위란 반대로 공권력행사의 성질을 갖지 않은 사실행위를 말한다.</p> <p>예) 주체가전문의 강제징거, 전염병행사의 강제적의 등</p>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예 : 교도소 수용명 / 형을 받고 집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불이익을 감수하게하고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수직적관계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권력행위에 해당한다. 형에 따라 교도소 수감기간동안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 성격을 갖는다.) <p>•비권역적 사실행위? 공권력행사의 성질을 갖지 않은 사실행위를 말한다.</p> <p>예) 공판정출납, 공공시설 건설, 행정지도</p>	 <p>부패 분석 - 기술선행(부패 인정X)</p> <p>대통령 2018. 5. 11. 2018헌나1 결정</p> <p>1. 부패 인정</p> <p>기술선행은 그 본질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부패의 성격을 띠지 아니하며, 기술선행의 행위에 부패의 성격을 띠지 아니하는 한, 기술선행의 행위에 부패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다.</p>																		
<p>〈사례 예시〉</p>	<p>〈질의응답 형식〉</p>																		

세 번째, 과제(판례 정리)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과제는 판결 결과, 법리적 쟁점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판결 결과를 통해 이 판례가 해당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가 개념과 일치한다면 법리적 쟁점을 통해서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 정리이다. “귀찮는데 굳이 왜 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과제를 하면서 느낀 결과는 이렇다. 판결 결과와 법리적 쟁점은 누구나 정리할 수 있지만, 생각을 정리하면서 판례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은 어렵다. 사실 판결이라는 것도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따라서 잘못된 판례도 많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 판례문과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많은 판례를 접하는 것이 우리의 법 지식을 높이는 데 더욱 더 도움이 된다. 아래는 직접 과제를 한 내용을 해당 내용별로 나누어서 표로 정리한 것이다.

<p>판결 결과</p>	<p>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에서의 업무집행상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p>
--------------	--

법리적 쟁점	공병단 공무원인 지휘관은 업무상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규정기간을 초과하도록 거주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하지만 영내거주를 초과하여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견가능성은 단순히 이러한 수치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살 가능성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해서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영내거주를 하면서 망인의 행동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어보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위법한 행위로 영내거주를 하게 했고, 예견가능성에 대해 망인의 행동에 대한 자살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생각	육군 공병단에서 근무하던 초일하사가 영내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해, 위 공병단 지휘관 등이 망인의 부대 적응을 도와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육군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 규정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은 존재한다. 영내생활이 다소 길어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공병단 공무원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잘못으로 망인이 자살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코멘트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이다. 12주차 과제제출 후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아래와 같이 남겨주셨다. 이 때의 과제는 다른 과제보다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과제 제출 시간이 다 된 상태여서 제출을 했다. 이를 교수님께서 알아챈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아니더라도 지방법원의 판례 또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이 때 코멘트 후 강의에서 정확한 이유(대학생&공시생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학위를 따는 학생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지방법원)를 설명해주셔서 이해할 수 있었다.

2. 발전된 나의 모습

1학기 때 들은 행정법1 과목에서는 강의를 듣지 않고, 인터넷에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과제를 수행했다. 점수도 들쭉날쭉했다. 80점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로 100, 85, 90, 80점과 같았다(지난 학기 과제점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설명). 이때는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내용을 정리하지도 않았고, 이번 학기와 달리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단계였다. 그래서 열게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목의 교수님은 매 과제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코멘트를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그 과제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반면 현재는 위와 같은 학습 과정을 토대로 공부하다 보니 점수가 일관되는 형태를 나타냈다. 그리고 행정법2의 과목 특성상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앞서 배운 개념과 연관 된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긴 나는 다른 학우들보다 쉽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은 과제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찾는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지난 학기보다 자신감도 더욱 가지게 되었다.

〈 12주차 과제제출 후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남긴 내용 〉

2020-2학기7) 행정법2 (01반) ~		✉						
인원	100명							
장부파일	12주교재1차분과-교재.zip							
과제제출 정보								
※ 주안점은 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과제가 자동으로저장됩니다.								
제출내용	2018061005, 교수님 황영민12주차 과제제출합니다.							
첨부	12주교재1차분과-교재_2018061005, 교수님.zip, 285268byte							
<hr/>								
왕기영민	<p>왕 기영민입니다.</p> <p>좋은 연말을을 선정했고, 아래 대한 정도도 잘 되었습니다.</p> <p>또한, 이전의 과제들에는 다르게 하여 부록을 보았습니다.</p> <p>해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장마가 있을 줄 알고 있었기에 붙여드립니다.</p> <p>또한, 반대를 신청할 때에는 가급적 대안함 또는 합의제안이치 마옵시다.</p> <p>-원칙적으로 가해행위는 부관할 뿐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부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나, 주된 처분에 대한 부속의 내용을 담는 것이라든가 계속행위라고 할지라도 부관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p> <p>2000년/661, 2011두러27 판결을 문주하여 제해습하기 바랍니다.</p> <p>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제기 바랍니다.</p> <p>고맙습니다.</p>							

3-2학기 행정법2 (01반) ~					
1	4주차 4차 행정법 2차강의(4주차 4주 3과제) 인문시간 : 11:00 20/10/21 00:00 ~ 20/10/04 23:59	미완료	포함	100점	100 점
2	제1차 1차 1인 문제 풀이 4주 3과제 인문시간 : 11:00 20/10/05 00:00 ~ 20/10/18 23:59	미완료	포함	100점	100 점
3	7주차 행정법2-과제 4주 3과제 인문시간 : 14:00 20/10/12 00:00 ~ 20/10/25 23:59	미완료	포함	100점	100 점
4	제1과제 4주 3과제 인문시간 : 20:00 20/10/19 00:00 ~ 20/11/01 23:59	미완료	포함	100점	100 점
5	제1과제 2차 10과제 3과제 인문시간 : 23:00 20/11/02 00:00 ~ 20/11/15 23:59	미완료	포함	100점	100 점
6	인기 올 문제풀이 자료 11과제 3과제 인문시간 : 20:00 20/11/09 00:00 ~ 20/11/22 23:59	미완료	포함	100점	100 점
7	제2과제 12과제 3과제 인문시간 : 22:00 20/11/16 00:00 ~ 20/11/29 23:59	미완료	포함	100점	100 점
8	행정법2 출제 과제 13과제 3과제 인문시간 : 25:00 20/11/23 00:00 ~ 20/12/06 23:59	미완료	포함	100점	100 점
9	14과제 3과제 14과제 3과제 인문시간 : 22:00 20/11/30 00:00 ~ 20/12/06 23:59	미완료	포함	100점	100 점
10	2020년 1차 행정법2 기출교재 15과제 3과제 인문시간 : 13:00	미완료	포함	100점	점

〈맏음말〉

위와 같은 학습 과정을 추천한다. 구체적인 것까지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노하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학우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토대로 자신의 학습노하우를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처음 접해 본 과목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앞서 공부했던 학우들의 공부방법을 봄으로써, 이 방법이 나에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통해 해당 강의에 빠른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



장려상

본인의 현 상황의 노하우

서건희(불교인문학부)

시간을 아까워 하며 찾는 목표

이채은(경영학전공)

시험 전날에 시험문제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동언(공공정책학부)

본인의 현 상황의 노하우

서건희(불교인문학부)

교과목 | 논리적인 사고와 글쓰기(최순종 교수)

본인은 일단 집안 방콕생활을 즐겨 하며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코로나 사태 + 친구들의 군 입대로 자연스럽게 1년간은 거의 집구석 폐인 백수 마냥 지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얻는 방구석에서의 노하우에 대하여 설명을 할 것이며 또한 본인이 추천을 하는 강의에 대하여 엮어서 말할 것이다.

본인이 추천하는 강의는 최순정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인 논리적인 사고와 글쓰기이다. 본 강의는 말 그대로 글쓰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하는 강의이며 그 강의 중에서는 논문을 쓰는 것이 꽤나 중요하게 다뤄지며 이러한 논문을 쓰는 방법은 차후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강의에 대해 노하우들을 몇몇 설명을 할 것이다.

그 중 첫 번째는 운동이다. 무슨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쓰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노하우이다. 수업에 대한 노하우이며 그 중에서도 본인은 운동 또한 수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한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박혀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햇빛을 못 보는 것이고 지인이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과의 교류가 부족한 상태이며 계속 집안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이다. 게을러지면 심신이 점점 무뎌지며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해서도 설렁설렁, 대충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이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운동이 나와야하는 것이다. 본인은 남자다보니 남자 시점에 맞출 것이다. 본인의 운동은 아침과 오후 시간으로 나뉘며 아침에는 씻기 전에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스쿼드를 3세트 하고 샤워를 하는 것이 아침의 일과이며 오후 시간에는 대체로 강의가 다 끝났으며 본격적인 운동으로 자전거, 근력운동을 한다. 이처럼 운동을 하며 땀을 빼놓아서 아침을 깨우거나 반대로 오후 시간에 운동을 하여 체력을 기르는 것이 수업에 대한 노하우 중 하나이다.

다음은 취미생활 및 휴식을 갖는 것이다. 앞에서 몸을 단련을 했다면 이번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다. 취미나 휴식을 통해 마음의 치유 시키는 것이다. 본인일 경우 취미로 식충식물을 기르거나 손가

락 피리를 연주하는 것이 취미이며 모든 과제와 일을 끝마친 휴일에는 독서와 명상을 통한 휴식을 얻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취미와 휴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닌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시간대에 하게 되면 결국 다시금 나태해지고 수업에 대해 매진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수업에 대한 노하우인데 먼저 시간표와 폴더 구분이다. 이는 본 설명하려는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강의들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한다. 현 상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업은 비대면을 통한 녹화강의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간 내로만 들으면 된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듣는 기간을 늦추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는 나태해지는 것의 길이며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통해 본인이 짜둔 시간표를 입력하면 그 시간에 맞게 문자가 뜬다. 그 시간표를 토대로 알람같이 일정을 맞추어 일정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렇게 시간표대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제 폴더를 구분을 하는 것이 좋다.

시간을 아까워 하며 찾는 목표

이채은(경영학전공)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 생각보다 한 해라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친구들도 보지 못하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답답하고 힘들었던 상황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래도 대학생이니 공부를 위해 수업을 비대면으로라도 진행하였는데, 비대면인만큼 평소에 집중하던 것의 반도 집중하지 못했을 학우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2학년이고, 내년엔 3학년이 되는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였고 2020학년도 2학기에는 여러 가지 전공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수업들을 신청하여 듣게 되었고, 이번엔 정말 잘해야지 다짐하는 학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아늑함과 동시에 나태함과 게으름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다니는 것처럼, 편안해도 너무 편안하면 공부하기에 많이 힘든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하는 저에게는 누울 수 있고, 제한이 없는 집이라는 공간에서의 공부는 고역과도 같았습니다. 생각으로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번학기처럼 마냥 편안하게 공부하려고, 알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의 방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번학기 성적이 잘 나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방법으로 인해서 나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어, 계절학과 자격증 수업 등을 신청하는 등 많은 공부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방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sns에서 보이던 '공주'공부 방법에서 유추해온 것입니다. 공주 공부법은 저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쉽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없애고자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는 등등 집이 아닌 바깥에서 공부하는 느낌을 내자며 만들어진 방법인데, 처음에는 꾸미는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히려 불편하면 더 공부가 되지 않을 것같은 생각에 웃고 넘긴 방법이였지만, 생각해보면 바깥에서 공부하는 느낌을 낸다면 시간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쓰고, 조금의 변화를 줘서 편안함을 없앤다면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에해보게 되었는데, 첫 시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조금의 화장을 한 후 공부하니, 오히려 화장이 옷에 묻을까 하는 생각에 자세를 바로 잡게되고, 누울까 해도 화장을 지우고 누워야겠다는 생각에 좀 더 공부하게 되고, 처음엔 집중과 자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여러 가지 필기구 사용하기였습니다. 옛말로는 어른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필기구가 화려하다’ 등 필기구나 공책이 화려하면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하여서, 살까 말까 하던 필기구들을 항상 포기했었는데, 사고싶던 필기구들을 사고, 노트정리를 이쁘게 하면서 공부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트필기는 항상 할 때는 힘들지만, 한 후에 잘 정리된 노트를 보며 느끼는 뿌듯함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얼른 공부를 더 해서 정리 노트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컸다 하면 다 컸다고 생각될 나이 21살에 아직도 공부하는 재미를 못느끼고 지식이 부족한 것을 보면 많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감을 잡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을 잘 받으려고가 아니라 이제 3학년올 바라보고, 성적이 아닌 취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기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는데, 그 중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목표를 정하자였습니다. 비대면이라 시간도 많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에 생각의 폭 또한 넓게 잡아보았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목표가 없어 너무 광범위 하기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삶의 목표가 아니여도 작은 목표부터 정해서 하루의 목표부터 정해보자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정성들인 것이 무산되는 것은 싫어하듯 그 심리를 이용해 저 역시 돈과 시간을 쏟아 목표 설립부터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케줄러나 다이어리를 구입하여 하루의 목표를 매일 기입하였고, 스티커나 데코 펜으로 꾸몄고, 알람을 설정해 휴식시간과 공부시간을 조율했습니다. 제 비대면 수업의 학습 노하우는 결국 돈을 쓰자, 정성을 들이자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들이고 돈을 썼다면 아까워서라도 하게되고, 저처럼 의지가 없고 목표가 없어 확실한 목적성을 갖고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말그대로 ‘아깝다’란 생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의 시간이 아깝고, 비대면 수업이라 남는 시간도 아깝고, 목표가 없는 생활을 하는 것도 아깝기에 더 많은 노력과 광범위한 공부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저의 목표를 찾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한 노하우는 아니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던 저에게 재미를 느끼게 해준 방법이기에 저와 비슷한 상황인 학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시험 전날에 시험문제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동언(공공정책학부)

교과목 | 자기표현 시대의 발표와 커뮤니케이션(최순종 교수)

시험 전날에 시험문제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시험 전날에 한 번쯤 해왔을 거라 생각해요. 시험 전날에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겠죠. 시험을 포기했거나 어떤 시험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전략을 세워놨을 경우일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자신이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져 포기하는 경우겠죠. 후자의 경우는 교수님의 문제스타일을 알고 강의 내용을 전부 필기해왔을 경우예요. 사실 시험 전날에 후자의 경우는 드물겠죠. 그럼 후자의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는 후자의 경우를 실천한다면 A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것이예요. 하지만 문제스타일을 알려면 그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해봤거나 선배들에게 그 교수님 스타일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강의 내용을 전부 필기하려면 강의성격에 따라 뛰어난 집중력과 시간이 요구되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둘 다 어려웠어요. 선배들과 교류한 적이 없으니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것인 어려운 것이고 이번 학년이 처음이기에 아는 교수님들도 적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의 해결책은 과제와 평가기준에 근거에 시험문제를 예측하는 것이었어요. 과제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는 것을 주로 내주는 것이고 평가기준도 학습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중간, 기말과 매우 유사할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간, 기말고사 모두 학생들이 잘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제와 평가기준을 통해 시험문제를 예측했어요. 다음 그림을 보세요.

1	작곡적 감정 일상 연습 후기 작성 3주 3회차 인정시간: 75분 20/09/15 00:00 ~ 20/12/18 23:59		포함	비공개	점	
2	1분 주제발표 발표기 개요 작성 5주 3회차 인정시간: 75분 20/09/28 00:00 ~ 20/12/18 23:59		포함	비공개	점	
3	1차 발표기 실기 평가 영상 제출난 7주 3회차 인정시간: 150분 20/10/12 10:00 ~ 20/12/18 23:59		포함	비공개	점	
4	중간고사 답안 제출난 8주 3회차 인정시간: 0분 20/10/19 10:00 ~ 20/12/18 23:59		포함	비공개	점	

이것은 중간고사 전 과제 목록이에요.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적극적 경청, 말하기 개요작성, 실기평가 영상이 중간고사 전 과제의 주제였어요. 다음은 중간고사 시험문제예요.

4. 적극적 경청 설명

적극적인 경청은 공감이다. 이 경청에는 3단계가 있다. 1단계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주입은 폭력이기 때문이다. 2단계는 언어적으로 반응이나 질문이 있어야 한다. 비언어적으로는 시선, 표정, 몸짓, 필기가 있다. 시선은 70~80%만 본다. 계속 보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표정은 웃는 얼굴과 기대하는 얼굴을 가지고 본다. 몸짓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우뚱 그리고 절레절레 한다. 필기는 손으로 적는 것을 말한다. 화자에게 내가 당신의 말을 적어놓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3단계는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화자가 말을 할 때 청자가 반응도 안해주고 듣지도 않는다면 지치고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8. 개요작성(한글)

화제: 한글

핵심명제: 한글은 세계의 어떤 나라의 언어와도 혼합할 수 있는 언어이다.

내용구조

1) 첫 말: 콩글리쉬, 일제잔제, 외국어 발음을 한국어로 표기한 것들 소개

2) 몸 말: 주변에 볼 수 있는 콩글리쉬나 기타 외국어 발음 표기어(사례제시) => 왜만한 어려운 외국어 발음들도 충분히 한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는 기사 제시 => 핵심명제 제시

3) 끝 말: 다시 한번 핵심명제 반복

청자분석: 대학생(동질성, 젊은세대, 성별혼합, 20~30명, 지식수준 다양), 교수님(동질성 희박, 기성세대, 남성, 1명, 지식수준 높음)

시간강 분석: 온라인을 통한 녹화 또는 대학 강의실

시험문제를 보면 동일하게 적극적 경청과 개요작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과제가 시험문제로 이어지는 패턴은 대부분의 강의에서 보이는 패턴이겠죠. 사실 저는 최순종 교수님의 강의를 1학기에 들었던 적이 있어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거나 평가기준을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필기했어요.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죠.

또 다른 해결책은 교수님 강의의 문제 형식들을 분석하는 것이에요. 다들 수능을 준비할 때 국어 지문을 분석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법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러한 방식을 중간고사 후나 교수님의 또 다른 강의 종강 후 사용했을 때 좋아요. 저는 1학기에 최순종 교수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 시험문제 형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1학기 강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형식을 분석했어요. 분석결과 동일한 형식이 발견됐어요. 시험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형식은 복수의 원칙, 단계, 조건, 법칙 그리고 실습과제였어요.

복수의 원칙은 2개 이상의 특징, 법칙 그리고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강의 중 설명하신 복수의 원칙을 가진 이론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1개 이상은 무조건 출제하셨어요.

7. 앨런피스의 거리와 화법설명

친밀한 거리는 15~45cm, 개인적인 거리는 45~120cm, 사회적 거리는 120~360cm 이다. 사회적 거리는 가게 점원과 배달원 사이의 거리이다. 그리고 공공적인 거리는 대중연설 정도의 거리이다. 이 거리는 360~500cm 거리이다.

12. 프레젠테이션 화면 제작 지침을 설명하시오.ㄹ

프레젠테이션 화면 제작 지침은 다음과 같다.ㄹ

재미있고 역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1화면에 1개의 주제 소주제를 담아야 한다. 문자와 이미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 글자크기는 충분히 크게 한다. 이는 폰트의 물리적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이해할 수 있는 크기라는 것이다. ㄹ 그리고 제목, 장, 절, 하위항목 글자 크기는 다르게 하여 직관적 수용이 가능하게끔 한다. ㄹ

그리고 화면 색상이 원색적으로 화려하면 촌스럽기 때문에 주조색으로 세련됨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 5가지 요소는 디지털로 할 때 쉽게 성립할 수 있다.ㄹ

이 두 문제는 <자기표현 시대의 발표와 커뮤니케이션> 강의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각각 한 개씩 가져온 문제예요. 이처럼 복수의 특징이 있는 문제는 무조건 출제하셨어요. 이외에도 나머지 형식인 단계, 조건, 법칙도 복수의 원칙과 유사하게 1개 이상씩 출제 되었어요.

실습과제형식은 과제로 내준 것 중에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걸리는 것들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이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이러한 문제 형식들을 알고 있으면 필기를 할 때 유용해요. 녹화강의의 경우에는 다시보기를 할 수 있기에 엄청난 집중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시간 강의의 경우에는 강의 내용에 계속 흥미를 가지면서 집중해야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강의 내내 집중하는 것은 어려우니 그냥 듣다가 이러한 형식을 교수님이 설명하시면 받아 적고 문제를 예상하면 돼요. 매번 집중할 필요도 없고 유용하죠.

<자기표현 시대의 발표와 커뮤니케이션> 강의는 실기도 포함되어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실기평가를 봐요. 실기평가의 평가방식은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전신이 나오게 하고 교수님이 알려준 조건에 맞춰 발표 영상을 찍어야 해요. 그래서 이 실기평가를 준비하는 방법은 평가조건을 숙지하고 당일에 영상을 찍은 후 자신이 평가조건에 근거해 평가해보는 것이에요.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평가하다보면 평가조건도 숙지하게 되고 실기평가물도 잘 제출할 수

있어 시험점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습을 해보는 것도 학습에 큰 도움이 돼요. 저는 혼잣말을 되게 자주해요. 생각을 할 때도 혼잣말을 하다보면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혼잣말을 할 수 없어 생각을 정리하려면 필기를 해야 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온라인 강의여서 강의를 듣는 중에 혼잣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토론이론을 배우면 실제로 토론을 해보고 발표 이론을 배우면 이론에 맞게 발표를 해보기도 했어요. 일중에 임상시험이었죠.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교수님이 조를 짜서 토론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내 의견을 말하면서 토론 과정에 대한 지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학습 파트너가 있으면 시험을 준비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저는 운이 좋게도 학습 파트너가 생겨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서로 일정에 맞춰 학습 스테디도 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기가 필기한 것을 다시 검토해보며 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면 필기 중 서술어를 적지 않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판별이 어려울 때 학습파트너가 필기한 것과 비교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학습 내용을 반복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자기표현 시대의 발표와 커뮤니케이션>강의의 시험과 과제를 준비하면서 썼던 방법에 대해 서술했어요. 여러분도 이 중에 써봤던 학습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 글을 읽고 최순중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거나 과제와 시험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줘서 고마워요.



참가상

내가 배우고 느낀 것에 대하여 이해명(공공정책학부)

슬기로운 비대면수업 생활 이한이(글로벌지역통상학(중국)전공)

위기를 기회로! 류석주(경영학전공)

내가 배우고 느낀 것에 대하여

이해명(공공정책학부)

교과목 | 현대사회의 공익과 공공인재(김성률 교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 운영이 진행되고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기 시작함으로써 나는 대학교 학부생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돌이켜보면, 올 봄 새 학기를 맞이한 나는 익숙지 않은 수업환경에 어려움을 느끼곤 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비대면 속 온라인 강의에 적응해나가고, 다시 한 번 새 학기가 되었을 때쯤엔 비교적 능숙하게 학습 기반을 두고 학습에 임하도록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공익과 공공인재’수업을 듣게 되었다. 나는 현재 공공정책학부 소속이면서 이후에 행정학을 전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공익과 공공인재’ 수업은 공직에 대한 나의 관심사와 일치하였고, 특히 1,2학기 통틀어 행정학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업이므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다. 김성률 교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수업은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에 대한 기본 이론과 이와 연관되는 개념들을 이해한 후, 이와 관련된 실제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구체적인 문제 사례들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교수님께서 공익적인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점이었다. 공익적인 문제에서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인 판단만으로 나누어 놓고 생각하게 되면, 오로지 두 가지의 측면에 한정하여 판단하기에 여러 요인들과 가능성을 배제할뿐더러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님은 수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균형적인 관점에 중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셨다. 처음에 이러한 균형적인 관점이 필요한 이유가 나에게겐 쉽게 와 닿지 않았지만, 수업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더 나은 결정이 될 것이라 예상하므로 어떠한 의견을 지지하지만, 내가 선택한 입장에 대해 단점, 반대회사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복잡적이고 공익적인 문제에 바람직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폭 넓고 균형 있는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공익과 공공인재’ 수업을 듣고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균형적인 시각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었다. 수업 초반, 공직의 기본개념에 관한 이론 강좌를 선행으로 실제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루면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주차별 과제로 주어졌다. 그러므로 수업을 듣기 전, 나는 우선 해당 주차 과제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첨부된 자료를 읽고 수업을 들었다. 먼저 과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수업을 들으면, 특별히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구체적인 부분과 전체적인 내용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었고 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수업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되도록 설명을 들으면서 핵심내용을 요약하도록 했고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로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따로 보충했다. 이때 한 번에 이해가 되는 부분은 내 방식대로 요약해서 적되, 후후에 자료조사나 공부가 더 요구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교수님의 설명을 그대로 적었다. 간혹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다시 해당 내용을 공부할 때 난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수님께서서는 매 번 실제 공익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공익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예시로 들어주셨다. 이처럼 강의를 들으면서 자료를 참고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이유를 적는 과정을 거친다면, 처음엔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 내용 일지라도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다.

과제제출을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최대한 과제에 담아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꼼꼼하게 살펴 넘어가지 않아서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요구하는 글의 방향과 내가 적어내는 글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과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드러내는 글쓰기이므로 이점을 항상 유의했다. 그런 다음에는 해당 주제에 관해서 자신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정하고 글로 자신의 의견을 펴려할 때엔 교수님이 수업 중에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두괄식으로 작성하되, 자신이 어떠한 내용을 작성할 것인지 서론에서 화두를 밝힌 후, 이것을 증명해나가는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글을 작성하려 했다. 여기서 구체적 설명이라는 부분에선, 수업을 가르치시고 과제를 평가하는 교수님의 지식관점에서 쓰는 것이 아닌 과제로 작성해서 내는 해당 주제나 개념에 대해 모르는 이에게 설명하기 위해 글을 쓰듯이 친절하게 써야 했다. 그러므로 예시를 가져올 때, 이 예시가 어디에 해당하고 무엇 때문에 이 예시가 이 글과 적합한지 생각해보고, 적합하다면 따라서 이러한 예시를 이유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관점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글에 수업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결국 과제는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글로 작성하여 폭 넓은 사고를 가지게 함이면서도, 그보다 우선적으로 배웠던 지식을 잘 활용하여 글로 녹여냄에 따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다.

공익은 보편적이고 배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에 있어서 행정을 이끄는 본질적인 가치이자 근거이고 기준이다. 따라서 공익에 관련된 문제는 늘 신중하게 접근한다. 한 개인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다수를 만족시키는 것이 더 어렵듯, 공익추구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서 좀 더 나은 상황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내야 했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나는 수업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공익을 위한 행정을 혹은 공직을 단편적으로 생각해왔음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현대사회의 공익과 공공인재’ 수업을 통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로 갠 듯이 엄격하게 나누어 따를 수 없음을, 공익문제에 있어서 균형적인 사고를 지향해야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처럼 나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학습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꼈다. 나의 이러한 것들이 노하우라고 불리기에 그저 개인의 사소한 학습 경험이나 방법이라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마지막 문장까지 적어 내려온 나의 에세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무리 해본다.

슬기로운 비대면수업 생활

이한이(글로벌지역통상학(중국)전공)

코로나와 함께 살아온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할 만큼 집콕생활에 익숙해졌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나는 1년 동안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몇몇 수업들은 녹화 강의로 진행되고 또 다른 몇몇 수업들은 줌이나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녹화 강의들은 2학기에 개편된 LMS 사이트가 매우 좋아져서 1학기보다 더 편리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뭔가 더 복잡해진 거 같아서 익숙하지 않았지만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 익숙해져서 수업 듣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줌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수업들은 수업에 참여할 때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편리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매우 작아서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이용해 수업 듣는 것이 더 편리했다. 그래서 나는 주로 노트북을 이용해서 수업을 참여했는데 교수님마다 줌 링크를 공유해 주는 방법은 또 다 달랐다. 하지만 내가 수강한 수업들은 모두 회의 ID를 직접 입력하고 비밀번호도 또한 입력해야 했다. 나는 원래 편리성을 위해 다이어리나 노트패드 등에 적어놓았지만 저번에 한 번 수업 직전에 그걸 까먹고 찾지 못하며 헤매던 경험이 있다. 분명히 노트북 옆에 포스트잇으로까지 붙여놓았는데 수업 시간이 되니 그 메모장이 귀신이 곡할 노릇으로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이다. 나는 아직도 그 상황을 떠올리면 눈앞이 아찔하다. (다행히 수업에는 늦지 않고 참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법은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인 스티커 메모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마 맥 OS를 이용하는 학우들을 제외하고는 다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티커 메모가 매우 편리한 이유는 메모를 다 작성하고 컴퓨터를 종료한 뒤 나중에 컴퓨터를 재부팅 시켜도 컴퓨터를 종료하기 전 화면에 띄워져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즉 노트북 옆에 붙어있는 포스트잇과 동일하지만 화면 안에 삽입되어 있고 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티커 메모에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는 수업의 회의 ID와 비밀번호를 적어둔다면 수업이 시작하기 1분 전에 컴퓨터를 켜도 더 이상 허둥지둥하

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나에게서는 매우 편리했다. 회의 ID와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을 들으며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나는 원래 노트에 필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실시간 수업을 듣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자주 생겨서 아예 스티커 메모에 다 적어놓고 수업이 끝난 뒤 복습한다고 생각하며 적어놓은 메모를 다시 읽으며 나만의 노트에 다시 정리해서 수필로 적어놓았다. 줌 화면과 같이 스티커 메모를 화면에 띄어놓을 수 있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쪽 대본처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이 스티커 메모를 실시간 수업을 들으며 요긴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학우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스티커 메모 덕분에 1년 동안 필기와 줌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수업의 참여를 보다 편리하게 한 것 같다.

오프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나는 플래너에 따로 수업 일정과 과제들을 정리해두는데 이번 LMS는 신기하게 과제 제출 기간이 자주 변경되는 수업이 몇몇 있어서 아예 과제 제출 기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플래너에 적어두는 습관이 생겼다. 교수님의 재량인지 사이트의 오류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과제의 제출 기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상관없이 과제에 충실하게 임하고 싶어서 플래너에 일주일이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주차별로 깔끔하게 스케줄을 적어두었다. 과제의 제출기한뿐만 아니라 녹화강의를 올려주는 교수님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주차별 수업이라도 1,2,3 교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교시들의 녹화강의가 몇 분인지, 다운로드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자료인지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적어두었다. 평소에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시험 기간에 내가 공부해야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교수님이 추가로 안내해주신 학습자료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을 선호하고 애용하였다.

퀴즈를 과제로 내주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에는 퀴즈 응시 시간이 끝난 뒤에도 공부하기 위해서 그 퀴즈의 문제와 답안을 적으려고 노력했지만 주어진 시험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조차 버거워서 포기했다. 다음 학기에는 이 점을 보완해서 퀴즈를 더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컴퓨터 교양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내주시는 실습 과제는 어려워도 끄덕거리며 최소한 한 번씩 무조건 다 실습하려고 노력했다. 코딩은 손에 익숙해져야지 코드를 짜기 쉬워지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대충 어디서 틀린 것인지 그 코드를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감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실습을 한 번씩 하려고 노력했다. 다운로드 한 프로그램 또한 무료 버전이라 수강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막혀서 실습조차 못하게 돼버리기 때문이다.

3학년이라 그런지 전공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들을 많이 들었다. 채수강을 한 과목들도 있고 교양수업도 있어서 그런 것 같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20학점 넘게 들어서 시험도 많이 보고 과제도 많이 있었던 1년이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너무 무기력해졌을 나 자신임을 알기에 과제들을 꼬박꼬박 하고 수업도 안 밀리고 들으며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나는 일단 시험 범위 안내가 올라오면 그 범위에 해당되는 수업들은 모두 1.75배속을 해서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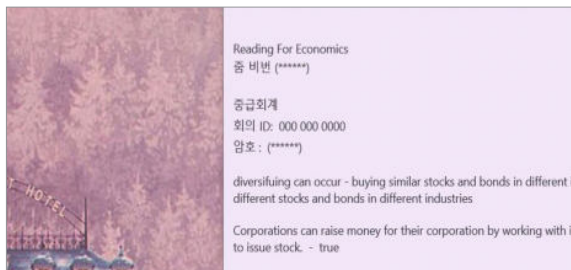
한번씩 듣는다. 처음 들을 때는 배속을 하지 않고 천천히 다 듣기 때문에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빠르게 듣다 보면 헛갈리는 부분과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나오기 일쑤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배속을 낮춰서 천천히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래프를 그리는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백지에 그래프를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값을 넣고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하고 X, Y 축의 단위와 값을 다시 확인해본다.

가끔 과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라면, 중간고사 전까지의 과제들 기말고사라면 기말고사 전까지의 과제들을 한곳에 모아서 다시 처음부터 꼭 정리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면 대충 이번 시험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과제가 아니더라도 책의 목차 등을 정리해서 한 번씩 써서 순서를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나는 워낙 덤벙거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플래너에 과제와 보강수업 일정 등을 적는 것이 필수이다. 책상에 놓는 달력에도 적어놓고 핸드폰에도 적어놓고 난 뒤에야 안심이 된다. 사실 까먹을까 봐 적는 것도 있지만 계속 적고 기억 속에서 상기시켜야만 해야 한다는 것을 내 뇌에서 인지하기 때문에 일부로 적는 것도 있다. 2020년도 1학기에는 아이패드를 새로 장만해서 거기에 필기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과제 빼고는 다시 수기로 필기하는 거로 돌아왔다. 그래프를 그리는 과제를 종이에 적고 스캔하는 과정에서 가끔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건 아이패드로 과제를 하고 제출하곤 했다.

2020년은 정말 정신없고 우당탕탕 한 1년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상상도 못했던 사이버 강의도 듣고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 한 해이기도 해서 애증의 2020년이다. 하지만 1년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하고 싶은 건 바로바로 하고 꾸준하게 무언가를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더 굳게 가지게 되었다. 컴퓨터 교양을 들으며 코딩의 흥미를 느끼고 방학에 코딩

독학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부족한 전공 공부를 KMOOC을 통해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로 나는 후회 없는 열정 넘치는 1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우분들 또한 나의 에세이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부터는 보다더 즐거운 비대면 수업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스티커 메모 활용 예시

위기를 기회로!

류석주(경영학전공)

군대에서 제대한 후 앞으로 졸업까지 남은 2년 동안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도서관에서 밥 먹듯이 살고 흔히들 말하는 병역버프를 좀 받아서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대학강의들이 원격강의로 바뀌게 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상황에 마주하자 집에서의 편한 생활과 나 이외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 나 스스로도 학업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놓는 시간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난 후 2020년 2학기 수강신청을 준비하면서 내가 벌써 3학년 2학기이고 이 학기가 끝나면 진짜 1년 밖에 남지 않는 취준생 신분임을 상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강신청을 할 때 일부러 학점을 21학점씩 채워서 신청을 했다. 사실 이긴 1학년이나 2학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인데 자신이 남는 여가시간에 공부를 성실히 할 자신이 없거나 아직 뭘 공부해야겠는지 계획을 세워놓지 못했다면 우선 학점을 꽉 채워서 들어놓는 것이 좋다. 1, 2학년 때에는 당장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기 보다는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학업보다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 하지만 3, 4학년이 되면 친한 선배들도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동기들도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공부한다든지 인턴십 프로그램을 찾아본다든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자신도 취업을 하기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때 1, 2학년 때 미리 학점을 많이 들어놓은 사람은 학교 과목을 좀 널널하게 들어서 자격증 공부, 취업 준비 등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 선배들은 취업을 준비할 때 혼자서 학교 공부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 같은 경우도 원래 대로라면 학점을 어느 정도 널널하게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내가 21학점을 꽉 채워서 들은 이유는 내가 쉴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3학년 1학기를 15학점을 들으며 자격증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사이버 강의로 쉬엄쉬엄 듣다보니 공부에 대한 의욕이 더 사라지는 것 같아서 선택한 방법이다. 그리고 사이버강의는 실시간으로 수업하지 않는 수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시간표를 세워놓는다면 21학점을 듣는다고 해도 내 개인 공부시간을 충분

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21학점을 신청했다.

수강신청할 때에도 나만의 팁이 있다. 우선 수강신청 전 강의 계획서를 전부 읽어보면 교수님이 수업을 이론 중심으로 진행하시는지, 과제물을 포함한 실습중심으로 하시는지, 발표를 섞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하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강의소개란을 읽어보고 자신의 흥미에 적합하는 수업인지 또 자신의 적성에 맞아 잘 공부할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 시간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나서 1주차 수업을 들으면 이 때에는 아직 수강신청변경기간이고 오리엔테이션주차여서 교수님들께서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이 과목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험에 관해서까지 설명해주시는 교수님들도 간혹 계신다. 그러면 그걸 듣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강신청의 목표가 나의 개인 공부시간을 확보해서 수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표를 짜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제중심보다는 이론 중심의 강의와 4학년 학기를 생각해서 졸업인증을 최대한 끝내놓는 시간표를 고민해서 계획했다. 특히 경영 전공 같은 경우는 보강주차에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경영 전공수업이 있는 요일에 다른 수업을 끼워 넣어도 시험공부를 할 때 몰아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선 학과공부는 전공공부, 어학공부, 컴퓨터관련 수업으로 공부 방법을 나눠 볼 수 있다. 전공공부는 나 같은 경우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은 이론으로 설명해주시는 개념들을 외운다기 보다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편하다. 수학, 과학처럼 공식이 있고 그걸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는 개념과 관련된 예시들을 보면서 배우는 과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경영컨설팅 과목을 들 때 경영컨설팅의 개념을 달달 외우는 공부 방법 보다 경영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경영컨설팅이란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훨씬 머리에 쉽게 기억이 되고 경영학 전공 시험 자체도 '개념의 정의를 서술하라' 이런 형식 보다는 경영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또 사고를 한 뒤 논술형식으로 이해한 바를 작성하는 시험이 더 많기 때문에 시험공부를 할 때도 훨씬 효율적이다. 어학관련 과목을 공부할 때는 암기와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 고등학교부터 많은 단어들을 외우고 문법들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시절 영어 공부보다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지만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예습으로 단어를 외우고 수업을 듣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수업시간에 배운 단어들을 수업끝나고 확실히 외우고 어학강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말하기, 읽기, 문법이 중심으로 된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기와 읽기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교수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기도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을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교수님과 친밀도가 쌓이면 비록 어려운 어학강의여도 그렇게 수업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게 되고 수업을 진

행하며 학습효과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1학년 때부터 중국어 수업을 들으며 체감했다. 하지만 문법같은 부분은 수업시간에는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셔서 쉽게 이해하긴 하지만 읽기, 말하기 처럼 체화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복습으로 확실히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것에도 좋고 시험공부를 할 때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요약하자면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단어와 문법을 복습으로 암기만 한다면 처음 배우는 어학강의어도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고 성적 또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우리학교의 특성 중 하나인 컴퓨터 관련 수업은 솔직히 말해서 제일 어려운 과목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 문적이고 어려운 과목을 듣게끔 강의들을 개설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1학년 때부터 매 학기마다 거의 1~2과목씩 개설되는 컴퓨터 수업을 미리 들어놓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 1, 2학년 때 컴퓨터 과목을 잘 들어놓지 않고 군대 제대 후 수업을 들으려니까 학기마다 개설되는 과목이 많지 않아서 이번 학기에 졸업인증수업들을 끝내 봐야 했기 때문에 컴퓨터 전공을 들어서 이수구분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물론 컴퓨터 과목자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전공 수업을 들어서 이수구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고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수업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년이 낮을 때 꾸준히 1~2개씩 들어놓는다면 더 어려운 전공수업을 들어가면서 까지 졸업이수학점을 채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컴퓨터관련 수업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는 개념과 기능 작동방법들을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것이다. 실천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물론 대면수업이라면 컴퓨터가 있는 강의실에서 직접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교수님께서 확인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지만 사이버강의 같은 경우 녹화강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또 실시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수님이 같은 공간 안에서 수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 손으로 배운 내용들을 실습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다 들을 수는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적으로 실습을 하려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수업을 다 이해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실행하는지 모른 채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것이 컴퓨터 수업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를 쌓아놓지 않는다면 다음 수업 때 진행하는 내용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험준비를 할 때 혼자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과목은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실습해보면서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과제물로서 해당 주차의 수업을 실습해보는 것을 내주시기 때문에 이를 빠뜨리지 않고 해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으로 나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우선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은 필기를 붙여야 실기를 응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필기를 함박하기

위해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얻은 팁은 “개념을 외우고 문제를 풀려 하지말고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체화시켜라!” 라는 것이다.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시험은 문제는행식으로 문제가 출제 된다. 이 말인 즉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며 중간중간 새로운 문제를 섞어서 출제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필기시험의 합격점수는 평균 60점 이상이고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나오면 과락하는 형식의 커트라인이다. 그리고 매 출제 문제들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많아봐야 5개 나머지는 기존에 출제됐던 수많은 문제들 중 약간 바뀌서 내거나 그대로 낸다. 그리고 개념을 다 보기에는 개념 항목수로만 봐도 300개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외워서 보기에는 상당한 공부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통독하듯이 쭉 훑어서 읽어내려간뒤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풀면서 문제에 나온 개념들을 보기에 있는 지문으로 공부를 하면서 문제들을 눈에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이내에 공부시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매일 3~4시간만 공부해도 정말 많은 양의 기출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지문만 봐도 답이 기억날 정도로 익숙해지게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었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이 취약한 과목위주로 보완을 해주고 그렇게 필기시험에 응시한다면 합격확률을 가장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컴퓨터 활용능력의 진짜 시험은 실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기는 입문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필기에 열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1학기를 보내고 난 후에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비록 이것보다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전부 실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줄 수 도 있고 성취감을 느끼며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얻은 성과를 공유하고 그 과정속에서 알게 된 학습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후배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며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들 많이 표현하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분명 위기를 위기로만 인식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이 위기를 기회로 보고 모두 원하는 위치에 오르기를 바랄 뿐이다.

2020 금강 학이시습지 수업에세이 공모전 작품집

편 집 로터스칼리지 교수학습지원센터

발 행 금강대학교

발 행 일 2021년 1월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http://www.ggu.ac.kr>



금강대학교